0.1cm
0.1cm
0.1cm
0.1cm
0.1cm
0.1cm
0.1cm

국지로 떠난 예술가들

0.1cm
0.1cm
0.1cm
0.1cm
0.1cm
0.1cm
0.1cm

국제로 떠난 예술가들

감사의 말씀

강성호 극지연구소장

예술가의 눈으로 볼 때, 북극해는 참 아름다운 바다입니다. 바다를 덮은 유빙들과, 길을 잃은 북극곰들을 종종 마주치고, 운이 좋은 날에는 밤 하늘을 가득 매운 신비한 오로라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과학자의 눈으로 볼 때, 북극해는 참 안타까운 바다입니다. 한 여름에도 영하의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고 유빙이 아라온을 흔들던 거친 바다는 이제 사라지고, 점차 뜨거워지는 태양만이 그 위세를 더하는 곳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더워지는 곳이자, 가까운 미래에는 떠다니는 유빙을 이제 볼 수 없을지 모르는 곳입니다.

이처럼 예술가와 과학자의 눈은 참 다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극지연구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예술가를 남극과 북극에 보내는 창작지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최전선에서 같은 것들을 서로 다른 눈으로 보고, 눈 앞에 다가온 기후위기와 이상기후 현상들을 공유하고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전시는 그러한 측면에서 예술가들이 보고 느낀 극지를 공유하고,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극지를 오가는 우리 연구진에게는 '일터'인 곳 이지만, 예술가들의 눈에는 극지가 어떤 곳일지 전시를 통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13년 동안 극지를 다녀오신 여러 예술가분들과 이번 전시가 있기까지 뒤에서 여러모로 협조해주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임직원분들, 그리고 이들의 극지 방문을 도와주신 여러 박사님들과 극지연구소 글로벌협력부 문화홍보실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말씀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장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이 성큼 다가온 기후위기는 남극과 북극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우리가 서로 연결된 존재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합니다. 극지는 우리의 손이 거의 닿지 않는 곳이지만, 이 얼어붙은 세계의 변화는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세계 선진국들은 극지가 지닌 무한한 가능성을 인지하고 투자를 지속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들보다 30년 늦게 극지로 진출하였음에도, 극지연구소를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세계적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고 글로벌 위기해결과 극지산업을 주도하는 선진국가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극지연구 글로벌 선도기관인 극지연구소와 협력하여 2011년부터 남극 세종기지와 한국 최초의 유일한 쇄빙선인 아라온호에 예술가를 파견하는 특별한 레지던스를 운영해왔습니다. 과학자에게만 허락되어왔던 미지의 영토, 극지를 탐험한 예술가들은 그들만의 시선으로 이 경이로운 세계를 마주합니다. 극지 레지던스 13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이번 전시는 지난 13년 동안 극지로 떠난 예술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지구 남북의 끝에서 과학자가 새로운 자원개발과 생태계 연구에 힘쓰고 미래를 개척하는 시도를 지속할 때에, 예술가들은 극한의 환경 속에서 과학자들과 동거하며, 자연과 과학, 사회와 개인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작품에 담아내었습니다. 예술가들이 과학자와 함께 엿보았던 극지의 13년이 전시장을 찾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의 끝 극지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매년 우리 예술가를 위해 소중한 기회를 내어주시는 극지연구소와 기꺼이 예술가의 동행을 허락해준 탐험대원님들, 전시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김효정 큐레이터, 국제교류부 김나영 부장과 정선희 대리,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극지연구소 글로벌협력부와 문화홍보실, 고되고 황홀했을 극지에서의 경험을 작품으로 나누어주신 작가들에게도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cm:
극지로 떠난 예술가들

김효정(미술사, 독립기획)

2019년 그린란드에서 녹아 없어진 빙하는 5,320억톤. 2003~2016년 평균 감소량보다 2배 이상 늘어났고, 이 정도 얼음이 바다에 빠지면 해수면은 1~2mm 상승한다. 과학자들은 해수면이 1cm 상승할수록 인구 4백만 명이 재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0.1cm는 대략 예상은 가능하지만 육안으로 식별이 힘들 만큼의 작은 크기이다. 이 미세한 단위는 조금만 쌓여도 금방 우리의 눈으로 확인 가능한 크기로 변하기 때문에 기후의 위기를 논할 때 자주 등장한다. 한편 과학자들은 1mm도 되지 않는 해양시료들로부터 빙하의 움직임을 예측한다. 즉 과거의 물질들로부터 우리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극지연구소는 2011년부터 매년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을 남극과 북극에 파견하는 극지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렇다면 극지로 떠난 예술가들은 0.1cm의 어떤 변화를 목격하고 발견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술가들은 1mm 크기도 되지 않을 것 같은 미약한 '인간'을 마주한 듯하다. 하나의 개체로서 작고 힘없는 인간, 헤아릴 수 없는 시간 동안 눈이 쌓여 단단하게 얼어버린 빙하 속 기포 하나 만큼의 인간이 되어 세상의 끝 극지를 눈에 담고 온 듯하다. 예술가의 눈에 극지는 시공간을 초월한 명상의 공간이자 과학자들의 치열한 연구의 장, 즉 조용한 전쟁터와 같은 곳이다. 멸종 위기의 동물들이 먹이를 찾아 헤매는 공간이자, 인간 세상에서 쓰이게 될 새로운 에너지의 가능성이 숨어있는 곳이기도 하다. 문학, 웹툰, 영화, 시각예술 작가들의 시선에 극지의 모습은 평화로운 모습 뒤에 여러 이해들이 얽혀있는 복잡한 공간으로 경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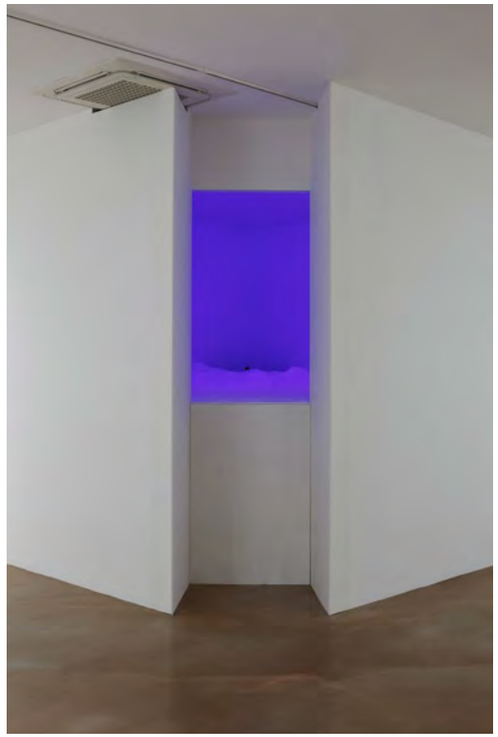
사실 문화예술기관과 과학연구기관의 후원으로 극지에 다녀오게 된 예술가들에게 작품 제작의 의무는 없었다. 본 성과보고전은 극지의 경험을 지나치지 않고 작품으로 만들어낸 예술가들에게 모든 빚을 지고 있다. 누구나 알지만 아무나 갈 수 없는 곳, 예술가의 눈을 빌려 극지가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일지. 자연이 말하는 소리를 작품을 통해 들어볼 수 있다.

김승영(시각예술)

2011년 남극세종과학기지 노마딕 레지던시(극지연구소·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3년 남극세종과학기지 답사

김승영은 2011년 노마딕 프로그램을 통해
남극세종과학기지를 다녀왔다. 1980년 후반부터
물, 이끼, 숯, 돌, 낙엽, 냄새 등을 비롯한 자연재료와
함께 빛과 음향, 사진, 기계장치 등의 다양한
매체로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는 남극 체험 후
거대한 자연에 대한 숭고함을 <가장 푸른 밤>으로
구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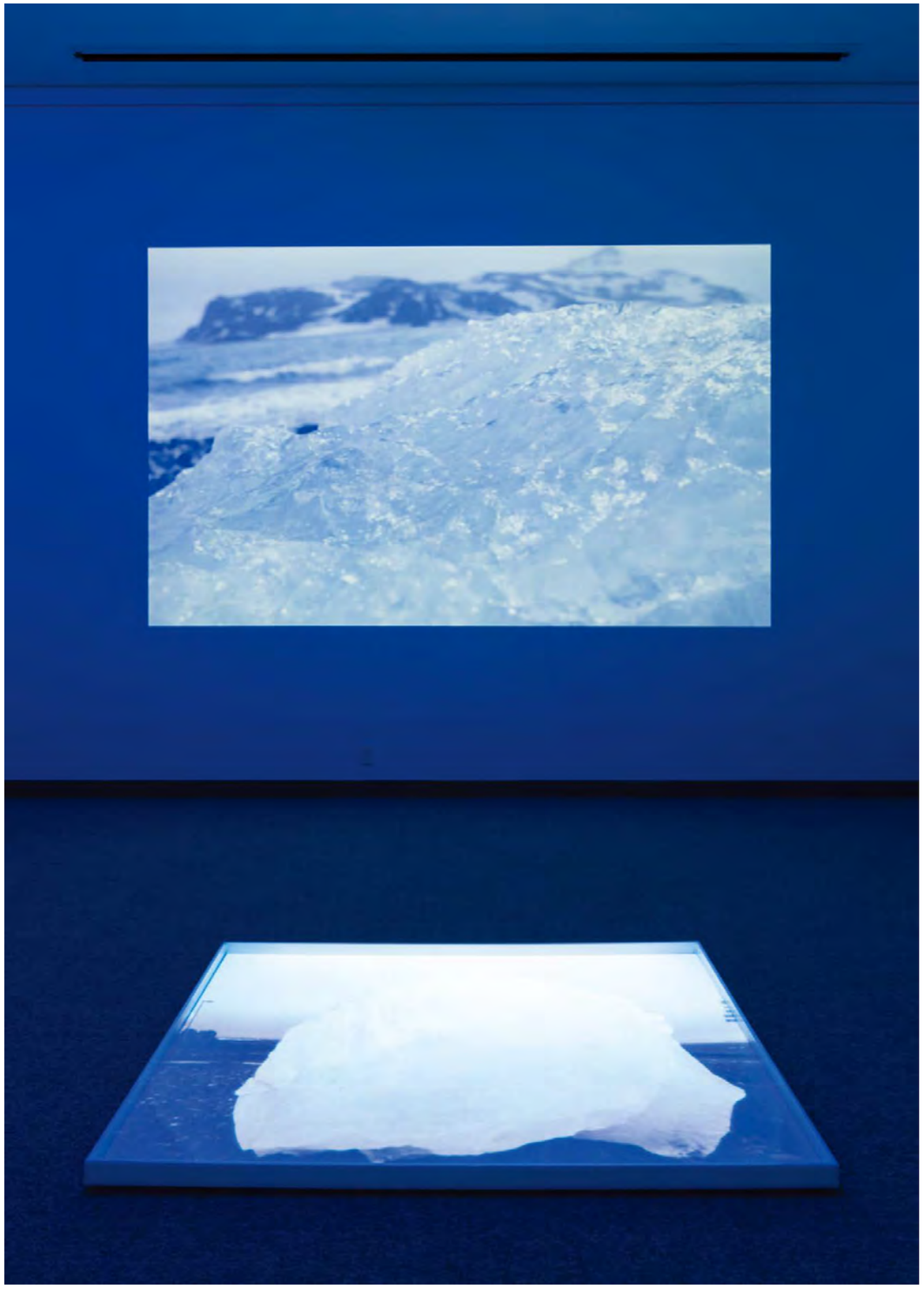
Flag, 2015, 소금, 깃발, 모터, LED, 가변크기, 설치 과정 1-4

깃발 - 작업노트

작품 <깃발>은 남극에 머물면서 자연에서 느낀 광대한 풍경과 그에 속한 작은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만든 작품이다. 거대한 자연을 바라보면서 '숭고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처음으로 깊게 느꼈다. 그 속에서 사색하는 나 자신이 거친 바람에 흔들리는 작은 깃발 같이 느껴졌다. 그런데도 이상한 것은, 너무나 거대해서 두려움이 밀려드는 자연 앞에 선 나 자신이 그 어느 때보다 작아졌지만 마음 깊숙이 순수한 환희가 꽉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점이다. 막연하지만 태초의 자연과 나와의 관계였으리라 생각했다.

작품 <깃발>은 공간의 빛과 작은 깃발의 움직임을 통해 사유를 불러일으키게 만들고 싶었다. 푸른색은 고요하고 끝을 가늠할 수 없는 색이자 우리 안에 깊숙이 숨겨진 갈망을 깨운다. 그리고 그 푸른 공간에 펄럭이는 붉은 깃발의 움직임을 통해서 고요한 사색과 미래의 희망을 느끼게 하고 싶었다.

관객은 좁은 통로를 지나 푸른 허공에서 소리 없이 펄럭이는 깃발을 만나게 된다. 모서리가 없이 둥근 푸른 공간은 비현실적이며 몽환적인 느낌을 갖게 함에도 불구하고 펄럭이는 깃발을 통해 현실을 인식하게 된다. 관객은 바람을 피부로 느끼는 것이 아닌 시각으로 느낀다. 무심한 듯 소리 없이 흔들리는 깃발의 움직임에서 나약하지만 한걸음씩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싶었다.



남극인상-가장 푸른밤, 2012 빔프로젝터, LED, 가변크기, 2분 19초

남극인상

12월의 남극은 여름이며 백야다. 서울을 떠난 지 4일 만에 먼저 남극 칠레공군기지에 도착했다. 멀리 바다 위에 떠 있는 수많은 얼음산은 낯선 풍경을 넘어 비현실적으로 보였다. 세상은 온통 흐린 잿빛 대기와 사방에 하얀 눈으로 뒤덮혀 어디가 산이고, 바다고, 하늘인지 구분할 수가 없다. 구름사이로 간간히 보이는 푸른빛이 여기가 현실임을 일깨울 뿐이었다. 잠시 서있었을 뿐인데 세찬 바람이 이내 눈을 감게 만든다.

첫날밤,
해가지지 않는 밤. 남극의 낯선 푸른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닮은 풍경, 숨을 들이 쉴 때마다 폐 깊숙이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는 한동안 아무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둘째날,
어제 남극의 밤에 대한 기억을 놓치고 싶지 않아 조용히 밤을 기다렸다. 남극의 밤은 투명한 푸른 담요로 감싼 것 같다. 마치 진공 상태의 푸른 유리병 안에 들어가 있는 기분을 갖게 한다. 호흡기를 타고 가슴 깊숙이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마저 푸른색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몇 번의 호흡만으로 푸른 공기는 나의 몸 구석구석을 타고 푸른색을 퍼트린다. 이곳의 하늘과 구름과 눈덮힌 산과 바다는 그렇게 서로 닮아 갔었던 걸까.

일곱째날,
빙산에서 떨어져 나온 얼음 덩어리가 포크레인에 들려서 세종기지마당에 놓여졌다. 바다에서 건져진 얼음에는 남극의 출렁이는 파도와 산과 골짜기, 하늘의 색이 고스라니 담겨 있었다. 1M 안팎의 작은 얼음덩어리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흥분된 마음으로 사진기를 들이댄다.

햇빛이 정말 좋았던 어느날,
적막한 남극에 아름다운 연주가 시작됐다. '또로로 또로로 띵 티딩...' 맑고 경쾌하다. 남극의 얼음은 눈이 쌓이면서 무게에 눌려 만들어 진다. 그런 과정에서 그 안에 공기기포가 생겨나는데, 기지 쪽으로 떠내려 온 얼음이 녹으면서 수 천, 수 만년 전 공기를 담고 있는 얼음 안의 기포가 터지면서 생기는 소리란다. 수 만년의 시간이 만들어 준 생경한 그 소리는 이곳을 더욱 더 신비한 곳으로 만들어 놓았다.

김주연(시각예술)

2011년 남극세종과학기지 노마딕 레지던시(극지연구소·한국문화예술위원회)



김주연은 2011년 노마딕 프로그램을 통해
남극세종과학기지를 다녀왔다. 작가는 <오래된
생명> 시리즈를 통해 남극이라는 혹독한 환경
속에서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는 남극생물을,
<유기체적 풍경> 시리즈를 통해 살아있는 듯한
빙벽의 모습을 사진 작품으로 남겼다.





오래된 생명II, 2012, 사진, 피그먼트 프린트, 160x106cm
오래된 생명III, 2012, 사진, 피그먼트 프린트, 160x106cm

#한국을 출발한지 나흘 만에 남극에 도착했다. 유럽(겨울)을 지나 남아메리카(여름)를 거쳐 남극의 자갈로 다져진 비행장에 착륙하는 순간 감개무량했다. 끝없는 바다와 빙산, 눈 더미의 풍경이었다. 거센 찬바람에 눈만 빼꼼이 내놓고 나머지는 발열, 방한, 방풍, 기능성 옷들로 몇 겹을 감쌌다. 지구가 생존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남극에 달렸다는 말을 대변하듯 기지에는 극한지 생물연구, 오존층의 파괴와 기후온난화와 같은 기상변화와 대기연구, 우주와 연결한 건설기술연구, 동토연구, 자원개발, 바이오디젤 등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었다. 1km 이상은 혼자 갈 수 없고, 언제 블리져드(blizzard)가 몰려올지 모르니 우리는 삼삼오오 무전기를 가지고 이동했다. 남극에서 목격한 가장 인상적인 풍경 중에 하나는 눈과 얼음결정체의 변화로 형성된 빙벽이었다. 녹고, 부서지고, 갈라지면서 만들어진 형태는 어디에서도 볼 수없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살아 있는 유기체”, “진화하는 풍경”이었다.

#남극생물로는 선태류(이끼)와 지의류가 있다. 이들은 긴 겨울동안 두터운 눈과 얼음에 덮인 채 블리저드와 혹한으로부터 보호 받으며 최소한의 신진대사만으로 생명을 유지한다. 그리고 여름이면 다시 살아난다. 이들은 다른 생명들과는 다른 자신만의 속도와 생명의 리듬을 가진다. 강인한 생명력으로 죽음과 부활을 반복하며 인간의 눈으로는 식별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미세하게 자랄 뿐이다. 이번 체류기간 작품으로 촬영한 Usnea aurantiaco는 1년에 0.1cm 밖에 성장하지 않는 생물이다. 그 존재를 바라보는 것은 지난 수백 년을 한눈에 바라보는 것과 같다. 나는 이들의 끊임없는 죽음과 계속된 생명력을 관찰하면서 나의 죽음을 더 가까이 맞이할 수 있었다.

- 작업노트 <남극> 중에서



유기체적 풍경 VI, 2012, 사진, 피그먼트 프린트, 137x91cm



유기체적 풍경VII, 2012, 사진, 피그먼트 프린트, 137x91cm
유기체적 풍경VIII, 2012, 사진, 피그먼트 프린트, 137x91cm

박홍순(시각예술)

2011년 남극세종과학기지 노마딕 레지던시(극지연구소·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박홍순은 2011년 노마딕 프로그램을 통해
남극세종과학기지를 다녀왔다. 남극의 매일을
사진으로 기록한 1,080장의 사진을 2011년
아르코미술관에서의 전시 <노마딕 리포트>에서
보여준 바 있는 박홍순은 남극의 일출을 담은 작품을
통해 시공간을 초월한 듯 보이는 남극의 백야를
나타낸다.





남극일기-On the rocks #001, 2012, 사진,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100x200cm
남극일기-On the rocks #002, 2012, 사진,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100x200cm

남극 그리고 푸르름

남극은 온통 푸르름으로 가득했다. 사진으로 늘 봐왔던 자외선으로 가득 찬 새파란 하늘은 좀처럼 얼굴을 내밀지 않았고 연일 계속되는 세찬 바람은 온 세상을 푸르스름한 기운으로 뒤덮었다. 빙산 속의 수 만년이 되었을 지도 모르는 공기방울들은 그 세월을 머금은 듯 저 깊은 중심에서부터 신비한 푸름을 내뿜었고 녹으면서 터져 나오는 공기 방울들의 소리는 수 만년의 시간을 한 순간에 터트리듯 가슴을 때렸다. 해가 진 밤조차도 깜깜하지 않았고 푸르스름한 빛으로 대지를 비추었다. 그렇게 남극의 여름은 깊어만 갔다.



남극일기-숲, 2012, 사진,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100x132.7cm
남극일기-숲, 2012, 사진,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100x132.7cm



남극일기-남극 일출 #001, 2012, 사진,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100x132.7cm
남극일기-Singles #001, 2012, 사진,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100x132.7cm

조광희(시각예술)

2011년 남극세종과학기지 노마딕 레지던시(극지연구소·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광희는 2011년 노마딕 프로그램을 통해
남극세종과학기지를 다녀왔다. <아름다운 소멸>은
여름을 맞아 기온상승으로 빙산이 유빙이 되어
사람크기만한 얼음들이 집단으로 녹고 있는 풍경을
담아낸 작품이다. 스크린을 가득 채운 남극의 얼음이
서서히 녹는 모습과 녹는 소리로 12년 후 현재의
남극을 상상해 보게 한다.





2023년 봄, 아르코와 김효정 선생님으로부터 <극지 레지던시 성과보고전> 제안을 받으며 기쁘고 아련한 마음에 2011년에 기록했던 작가 노트를 뒤적였다. 12년의 시간이 흐르고도 바로 어제의 기억처럼 느끼는 감정은 있지만, 한편으로는 12년 전의 기록만큼 생생한 글은 없으리라는 생각에 그때의 글을 그대로 옮기며 기록과 감상자로서 이번 전시를 맞는다.

- 2012년 남극 기록 * 아름다운 소멸

남극에서의 레지던스가 확정된 이튿날, 나는 여행길에 오르게 될 이야기를 지인들에게 전하며 한결같은 축하 메시지를 받았다. 서울 도심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내게 뜻밖에 주어진 이번 여행의 부풀었던 기대감과 고마움은 남극 여정을 마치고 난 지금도 깊은 여운으로 남아 있다.

남극은 자신이 처한 곳으로부터 매우 특별한 일탈이자 도시 문명으로부터 고립되고 싶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열망, 그리고 자연으로의 회귀본능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를 극한에서의 생존에 대한 도전이었다.

빠르고 편리함, 그리고 자본과 소비를 부채질하는 사회가 인간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것, 인간이 문명사회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것은 바로 대자연이 주는 숭고함과 생명성이다.

내 혀끝을 지나 이젠 피가 되고 살이 되었을, 내 몸속 어딘가에 체화되었을, 1000년 전의 얼음을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그 충만함으로 설레게 된다.

얼마 전 고은 시인은 인터뷰 글에서 서울 도심의 불빛에 가려 지상과 멀어진 별들에 관해 이야기를 했다. 우주라는 시간 공간의 무한 속에서 자신을 티끌에 비유하며 '내 존재 티끌의 무대'라고 하였다. 그러하듯 나는 지구의 맨 끝자락 남극에서 일렁이는 작은 생명체로서 그곳에 내 몸의 지각을 올려놓으려 애썼다.

서울에서 출발해 파리와 산티아고, 푼타아레나스를 거쳐 남극으로 가는 4일의 여정은 마치 도시가 원시 자연으로 들어가는 경로를 빠르게 압축해 보여준 특별한 풍경으로 그 속의 도시건축과 소음들은 남극에 가까워지면서 주변 환경과 함께 어울리며 순화됨을 느꼈다.

세종과학기지가 있는 킹조지 섬은 극한의 남극으로 가는 초입의 관문이다. 그곳에서 조금 떨어진 마리안 소만의 빙붕은 남극의 시작점처럼 날씨가 풀리면 간간이 대포 소리 같은 굉음을 내며 빙산이 무너진다. 거친 숨을 내쉬고는 10m 이상의 높이인 빙벽에서 커다란 유빙이 떨어져 나온다.

남극의 얼음은 눈과 공기가 쌓여 압축되는 과정에서 얼음 안에 반짝이는 작은 기포가 많이 생성된다. 만약 누군가 운이 좋아 빙산 높이 10m 아래쪽의 유빙 조각을 해안가에서 마주했다면 최소 1000년 전의 얼음과 만난 것이고 그때의 공기를 감각할 수 있는 기회이다.

그렇게 남극의 중력은 내 시지각을 끌어당기면서도 무언가에 대한 열망을 온전히 내려놓게 했다. 남극의 생경함은 마치 나에게 창작자로서 표현에 대한 가치를 내려놓고 오로지 사색하고 느끼기를 권고하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는 시간이 물질화되는 것이 아닌 녹으면 공기로 증발되는 비실체성에 가까운 얼음의 대륙을 보았다.

인간의 역사가 문명 안에서 끊임없는 개발과 가시적인 것들로 뒤덮여 사라지기를 반복했다면, 극지방에서의 커다란 빙봉과 푸르디푸르게 출렁이며 깊이를 과시하는 바다는 문명의 이기를 감내하며 묵묵히 자신을 지키고 있었다.

남극 어디서도 쉽게 주울 수 있는 한 조각 얼음과 그 속의 기포를 보며 오랜 시간이 보존되어 고스란히 밀봉된 남극은 나에게 또는 우리의 문명에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아름다운 소멸, 2012, 3채널 영상설치, 가변설치, 5분 반복영상

한정기(아동문학)

2006년 Pole to Pole Korea 남극체험단(극지연구소)
2012년 아라온호 승선 레지던시(극지연구소·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정기는 2012년 아라온호 승선 레지던시에 참여했다. 승선 기간 동안 스키장에 놀러간 아이들의 탐정 스토리를 다룬 <플루도 비밀 결사대: 퍼즐을 맞춰라>를 집필했고, 앞선 2008년에는 남극 세종과학기지 20주년을 기념하여 극지 연구소의 후원으로 남극 방문 후 <남극에서 온 편지>를 남겼다. <남극에서 온 편지>는 세종 기지에 파견된 과학자인 삼촌이 남극에서 머무는 1년 동안 한국에 있는 조카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구쟁이 솔이와 귀염둥이 별아! 그동안 잘 지냈니? 삼촌이 한국을 떠나온 지도 벌써 열흘이 넘었구나. 삼촌이랑 함께 지도를 펴 놓고 남극이 어디에 있는지, 세종 기지는 어디에 있는지 찾아봤던 거 기억나지? 이제부터 솔이와 별이는 삼촌이 보낸 편지를 읽을 때마다 지구의 가장 아래에 있는 남극을 떠올려 보렴. 지금 삼촌은 너희들과 같이 살펴봤던 남극의 세종 기지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단다.

1월 21일, 솔이와 별이가 보고 싶은 삼촌이

한국에서 세종 기지로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를 거쳐 칠레의 푼타아레나스까지 가야 해요. 그리고 거기서 경비행기 또는 군용 수송기나 쇄빙선을 타고 킹조지 섬으로 가요.

남극 대륙과 남위 60도 아래쪽의 섬들을 합해서 남극이라고 해요. 남극에서 사람들의 발길이 가장 먼저 닿은 곳은 칠레와 가까운 남셰틀랜드 군도예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이곳으로 와서 물개와 고래를 잡았어요. 킹조지 섬은 남셰틀랜드 군도에서 가장 큰 섬이에요. 세종 기지는 킹조지 섬의 바튼 반도에 자리 잡고 있어요.

솔이와 별아, 삼촌이 보내 준 사진의 세종 기지 건물이 마치 빨간 상자 같다고? 건물을 좀 더 멋지게 지으면 좋을 거라고? 하하하, 삼촌 설명을 들으면 생각이 달라질걸! 남극에는 안개가 끼고 눈보라가 치는 날이 많아. 어떨 땐 코앞도 안 보일 정도야. 너희가 눈보라 속에 있다고 상상해 보렴. 어떤 색깔이 눈에 가장 잘 띌까? 그래서 세종 기지는 온통 빨간색이란다. 건물이 마치 컨테이너처럼 멋없는 모양인 것도 다 이유가 있어. 추운 남극에서 건물을 짓는 건 무척 힘들어. 그래서 최대한 간단한 모양의 건물을 짓는단다. 겉보기엔 이래도 안은 얼마나 따뜻하고 편리한지 몰라.

2월 15일, 포근한 방 안에서 삼촌이

세종 기지의 건물은 모두 땅 위로 솟아 있어요. 이런 것을 고상식 건물이라고 해요. 만약 건물이 땅에 딱 붙어 있다면 눈이 쌓였을 때 문을 열 수가 없을 거예요. 킹조지 섬의 95퍼센트는 1년 내내 얼음으로 덮여 있어요.

세종 기지 입구에는 늠름한 장승이 지키고 서서 이곳이 대한민국 기지라는 사실을 알려 주고 있어요.

솔이와 별이는 삼촌이 세종 기지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하다 그랬지? 삼촌은 남극 바다 속 미생물을 연구한단다. 세종 기지에는 삼촌처럼 남극의 생물을 연구하는 과학자 말고도 날씨를 연구하는 과학자, 광물을 연구하는 과학자, 빙하를 연구하는 과학자 등 여러 과학자들이 있어. 세종 기지의 과학자들이 모은 자료는 한국에 있는 극지연구소로 보내져. 그러면 극지연구소에서는 이 자료들을 가지고 더 깊이 연구를 한단다. 이렇게 해서 과학자들은 남극에 대해 몰랐던 것들을 하나하나 밝혀내고 있지.

4월 17일, 남극을 더 잘 알고 싶은 삼촌이

과학자들은 바다가 얼면 얼음에 구멍을 내서 바닷물을 떠요. 그리고 이 물을 연구실로 가져가서 관찰해요.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깊은 바다 속 물이나 흙을 조사하기도 해요.

별아, 솔이 오빠랑 동물원에 갔다고? 동물원에서 귀여운 아기 북극곰도 보고 참 재미있었겠구나. 그런데 남극곰은 없어서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맞아. 북극에는 곰이 살지만 남극에는 곰이 없단다. 대신 수많은 펭귄들이 있어. 여름이 시작되면 세종 기지 근처에 있는 펭귄 마을에는 수천 마리의 펭귄들이 몰려와 알을 낳지. 남극에는 나무도 없단다. 하지만 식물이 전혀 없는 건 아니야. 세종 기지 주변에서는 이끼나 지의류 같은 식물을 볼 수 있어. 최근에는 남극개미자리도 보이기 시작했지. 남극개미자리는 꽃을 피우는 식물이란다. 남극에도 꽃이 핀다니 신기하지?

6월 16일, 푸른 산이 그리운 삼촌이

황제펭귄은 가장 몸집이 큰 펭귄이에요. 남극 대륙에서 살기 때문에 킹조지 섬에 자리한 세종 기지 주변에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세종 기지 근처에는 펭귄, 물개, 해표, 바닷새, 물고기 등 매우 다양한 동물들이 있어요.

지의류는 꽃을 피우지 않고 포자로 번식하는 식물의 한 종류예요. 바위나 자잘한 돌멩이 위에서 자라요.



오늘은 삼촌이 시원한 얼음 이야기를 들려줄게. 지구에 있는 얼음의 90퍼센트는 남극에 있단다. 평균 두께가 2,000미터도 넘어. 정말 엄청나지? 간밤에 바람이 심하게 불더니 세종 기지 앞에 거대한 빙산이 밀려왔더구나. 시간이 흐르면 빙산은 녹거나 갈라져서 여러 가지 모양의 얼음 덩어리가 될 거야. 얼음 덩어리는 바닷물 속에 잠겼다 떠오르면서 연옥색, 청색 등 신비로운 색깔을 띠기도 해. 빙산이 녹을 때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면 얼음 속에 갇혀 있던 공기 방울이 터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단다. 이런 소리가 나지. 톡! 탁! 틱!

9월 23일, 공기 방울 소리를 좋아하는 삼촌이

빙하는 눈이 많이 쌓여서 만들어진 얼음이 강처럼 흐르는 거예요. 빙하는 자기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바다로 조금씩 밀려 내려가요. 빙하 위에는 얼음이 갈라져서 깊숙한 틈이 생겨요. 크레바스라고 불리는 이 틈에 빠지지 않게 주의해야 해요.

바닷가로 밀려온 빙하의 끝부분을 빙붕이라고 해요. 바다와 맞닿아 있는 빙붕은 가파른 절벽을 이루고 있어요. 빙산은 빙붕에서 떨어져 나와 바다에 떠다니는 얼음이에요. 처음엔 위가 평평하지만 차츰차츰 녹아서 모양도 크기도 제각각이 돼요. 둘레가 수십 킬로미터에 이르는 큰 빙산이 다 녹으려면 몇 년이 걸리기도 해요.

솔이와 별이도 지구 온난화라는 말 들어 봤지? 지구 온난화란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서 점점 더워지는 거란다. 우리가 석유와 석탄을 많이 쓰고 나무는 베어 내는 바람에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져서 그래. 지구 온난화 때문에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늘고 있지. 남극과 북극도 큰일이야. 얼음이 자꾸 녹아내리고 있거든.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 삼촌이랑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

12월 3일, 남극을 지켜 주고 싶은 삼촌이

지구가 더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닷물이 늘어나서 육지의 일부가 잠길 거예요. 심각한 가뭄과 홍수가 반복될 거고, 사막이 넓어져서 농사지을 땅이 부족해질 거예요. 게다가 갑자기 바뀐 환경 때문에 많은 동물과 식물이 멸종하겠지요.

작은 실천도 지구 온난화를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고 먼 거리는 승용차보다는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해요. 가전제품을 쓰지 않을 때는 코드를 뽑아 둬요. 여름에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거나 겨울에 난방을 지나치게 하지 말아요.



『남극에서 온 편지』, 2008, 글 한정기, 그림 유기훈, 비룡소

천운영(문학) × 정지우(영화)

2013년 남극세종과학기지 노마딕 레지던시(극지연구소·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설가 천운영과 영화감독 정지우는
2013년 노마딕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통해
남극세종과학기지에 다녀왔다. 소설가, 영화감독,
뮤지션, 일러스트레이터, 웹툰 작가 등 각기 다른
분야의 예술가들이 한 팀을 이루어 방문했던 본
프로그램에서 천운영과 정지우는 중편 다큐멘터리
작품 <남극의 여름>을 공동 연출했다. <남극의
여름>은 남극 세종과학기지에 가게 된 18명의
월동대원들의 연구 활동을 묘사한 작품이다.

남극의 여름

2013년 세종기지의 여름. 27차 월동대원 18인과 하계연구원 12명의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들의 일상에 천천히 스며들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속 깊은 인터뷰들이었다. 기상대를 설치하기 위해 짐을 나눠지고 눈밭을 가로지르고, 식물공장에 상추를 심어 겨울을 대비하고, 보급품운반과 마늘 까기와 대청소 등.

그리고 2014년 12월. 세종기의 여름을 완성하기 위해 다시 남극으로 갔다. “우리가 남극에 가는 이유는 인간이 우주에 우주선을 쏘아올리는 이유와 같다.”라고 말한 세종기지 27차 월동대 허순도 대장의 언급처럼. 남극의 겨울을 지나온 월동대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남극의 여름은 밤이 되도 해가 지지 않는다. 겨울은 하루 종일 밤이다.
남극의 식물들은 여름에 손톱만큼 자라고 겨울에는 죽은 듯이 잠을 잔다.
그것이 식물의 살 방도.

세종기지에 간 월동대원들은 인간의 일상과 가장 먼 곳으로 찾아가서 일상의 삶을 잃지 않기 위해 애를 쓴다.
그것이 인간이 살 방도.

자연도 인간도 각기 살 방도를 찾는, 가장 단순한 공간 남극.
거대한 우주의 한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보는 궁극의 장소.
우리는 왜 남극에 과학기지를 세우고 연구를 하는지.
비일상적인 공간 남극에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남극 세종기지에서 생활하는 월동대와 과학자들의 일상을 통해,
존재한다는 것의 의미를 되새겨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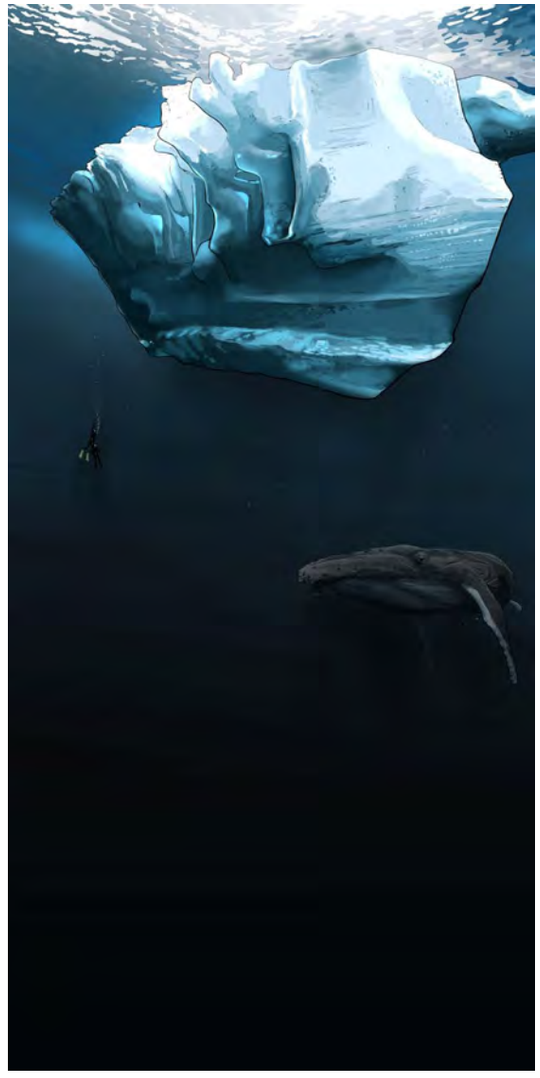


남극의 여름, 2016, 다큐멘터리, 45분

윤태호(웹툰)

2013년 남극세종과학기지 노마딕 레지던시(극지연구소·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9년 남극 K-루트 탐사대(극지연구소)





윤태호는 2013년 노마딕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통해 남극세종과학기지에 다녀왔다. 그 후 2019년 남극의 두 번째 기지인 장보고과학기지에서 남극 대륙으로 향하는 K-루트 탐사대의 홍보스텝으로 참여하였고 그 이후 2013년 함께 남극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뮤지션 이이언을 참고하여 주인공을 만든 웹툰 <어린>을 제작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연재한 <어린>을 통해 각자 내면에 있는 극지를 나타내고자 했다.

어린

잃어버린, 나의 비늘을 찾아서 -
물고기 어(魚) 비늘 린(鱗)

‘물고기 비늘’이란 뜻의 ‘어린’
“물고기 비늘(어린)이 물고기를 보호하는 갑옷과 같은 역할을 하듯,
우리도 자기 자신을 지키는 저마다의 ‘어린’과 같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한다. 살다 보면 그 비늘이 뜯겨져 나가 마음이 황폐해지는 순간인
심리적 ‘극지’의 상태가 오기도 한다. 웹툰 ‘어린’은 자기만의 극지에서
자기 비늘이 벗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저마다 극지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울림이 있길 바란다”









어린(물고기 비늘), 카카오웹툰, 2020 ©슈퍼코믹스

「2019 K-루트 탐사대 남극 일지」
- HISTORY -

윤태호

2013년 극지연구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공동으로 남극 세종 기지에서
'2013 남극 노마딕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나는 동료 예술가 4명과 함께 프로그램 공모에 참여하여
남극을 갈 수 있었다.



총 46일 정도 소요되는 기간을 마치고 돌아와
남극 만화 기획에 들어갔지만
이야기의 상투가 쉽게 잡히지 않았고
개인적으로는 팔 부상으로 인한 잦은 휴재와
이미 계획되어 있던 작업들을 마무리하느라
시간이 여의치 않았다.

그래도 취재를 이어가야 했으므로
틈나는 대로 극지연구소를 찾아가
당시 인솔자였던 이형석 박사와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2017년 어느 날,
여전히 이형석 박사와 새로 지어진
장보고 기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대한민국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프로젝트 소식을 듣게 되었다.
해안가의 장보고 기지에서 남극 내륙으로
끝없이 달려가는 탐사대의 이야기였다.

흥미가 오를 때쯤 거짓말처럼 탐사대 단장인
이종익 박사가 등장했다.



잠깐 이종익 박사에 대해 설명하자면,
지질학을 전공했고 우리나라에서
빙하와 운석에 대한 몇 안 되는 전문가이다.



참고로 예전 진주에 떨어진 운석 역시
이종익 박사가 현장으로 달려가 분석을 주도했었다.



그는 이미 6년 전부터 걷고 뛰고 스노모빌을 타며
남극 내륙으로 들어가는 탐사를 주도하고 있었다.





(사진 K-루트팀 제공)

K-루트(Korean Route) 탐사는
남극 내륙 깊숙한 곳에 지을 내륙 기지 터를 찾고
그곳까지 연구인력과 물류를 이동시킬
우리만의 길을 찾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88년에 남극 킹조지 섬의 세종 기지와
2014년에 동남극 테라노바만 연안에
장보고 기지를 준공했다.
세종 기지는 기후와 해양 연구를,
장보고 기지는 빙하 연구와 남극 내륙 중심부로
진출하는 교두보를 맡고 있다.

세계 10번째로 남극에 두 개 이상의
연구 기지를 보유한 국가가 된 것이다.



(사진출처. 극지연구소)



(사진출처. 극지연구소)

남극일지, 어린(물고기 비늘) 중에서, 카카오웹툰, 2020 ©슈퍼코믹스

한창훈(문학)

2013년 아라온호 승선 레지던시(극지연구소·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창훈은 2013년 아라온호 승선 레지던시에
참여했다. 전라남도 여수 거문도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섬에 살며 바다와 섬에 사는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만을 집필해오고 있다. 2014년에
출간한 산문집 <내 술상 위의 자산어보>의 마지막
챕터 "북극 항해기"를 통해 아라온호 승선 당시의
경험담을 생생하게 기록했다.







어렸을 때『새소년』에서 봤던 퀴즈 하나. 세상 어떤 곳에 A지점이 있다. A지점에서 5킬로미터 남쪽으로 내려온다. 그리고 서쪽으로 5킬로미터, 그리고 북쪽으로 5킬로미터 이동한다. 그런데 출발한 A지점이 나온다. ㄷ자 형태로 갔지만 실제로는 삼각형을 그리게 된 것이다. 이런 곳이 어디에 있을까. 바로 북극점이다.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영화는 아직 못 본 영화이다. 이 항해가 그렇다. 그동안 나는 먼 항해를 서쪽으로만 했다. 이번 항로는 북쪽이다. 그곳에 북극해가 있다.

가느다란 비가 내리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물방울이다. 너울도 잠잠해졌다. 두번째 면도를 한다. 승선 3일째엔가 손톱을 깎았다. 나는 손톱과 수염으로 시간이 간 것을 확인한다. 할미새같이 생긴 녀석이 갑판에 내려앉아 돌아다녔다. 한참 바라보았다.

늦은 오후, 해양연구원 소속 두 분이 수심 2천 미터 바닷물을 열댓 박스를 옮기는 중이다. 원시 지구 때 생긴 방사능 중에서 계속 반감되어가는 것들을 체크하기 위한 용도. 이렇게 과거를 읽어내는 거, 참 매력 있다.

날짜변경선을 지나는 탓에 14일이 두 번이다. 하루를 이틀 산다. 아니, 이틀을 하루로 사는 건가? 알류샨열도 중에서 러시아와 미국의 경계선을 타고 지나고 있다. 베링해라서 연신 파도가 높다. 해저 지도를 보면 아주 험악한 산맥이다. 깊게는 4천 미터, 얕게는 150미터로 변화도 심하다. 거기다가 화산활동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이것 때문에 이곳은 물살이 거세고 파도가 사납기로 유명하다.

18일 일요일, 드디어 알래스카에 도착한다.
새벽 다섯 시 일어나 선수로 가보니 새벽노을이 퍼지고 있고 땅이 조금 더 가까이 보인다.
배는 데드 슬로우로 천천히 다가간다. 비로소 동네가 보인다. 한일 자로 이어진 집들. 나무 하나 없는 뒷산 구릉들. 초록색 이끼 색깔. 이곳은 세상의 변방이다.

밤사이 배는 또다른 포인트로 이동했다. 꽝꽝 얼어 있는 얼음덩어리를 약간의 햇살이 덮고 있다. 얼음끼리 만나 솟구친 곳은 산맥 같다. 배가 못 깰 때가 있다. 그러면 후진하여 다시 속도를 올리고는 올라타서 깬다. 그럴 때마다 배는 요동을 친다. 썰매 같기도 하고 빙수 가는 기계 같기도 하다.







©한창훈

날짜변경선을 왔다 갔다 하는 중이다. 배는 놈 항 시간을 따르고 있다. 얼음이 줄어들고 수평선이 보이기도 한다. 물결이 너무 잔잔하다. 북위 74도. 얼음 깨지는 곳에서 물고기를 봤다. 예닐곱 마리. 대구 새끼라는데 정확히는 모르겠다.

남박사 팀에 합류. 이 팀이 바로 바닥의 펄을 채취하는 연구진이다. 3미터 또는 6미터 파이프를 수직으로 내려 펄을 찍어 올리는 것은 중력코어, 작은 것 여러 개 하는 것은 멀티코어, 바가지 있는 것은 박스코어라고 한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는데 한 뼘에 대략 2, 3만년 시간이 담겨 있다. 인간은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과거를 궁금해하는 종족이다. 내가 취직되었다는 소문이 선내에 돌았다. 마주치는 사람마다 말을 걸어왔다. 얻어먹는 데서 빌어먹는다더니 구경하다가 졸지에 팀원이 된 것이다. 물론 월급은 없다.
지질층을 통해 과거를 분석하는 일에는 판타지가 섞여 들어가야 한다고 남박사님이 말했다. 이곳 바닥에 쌓인 흔적을 가지고 과거 지구 기후와 환경을 서로 연결해 짐작해야 하기 때문에 소설적 접근 없으면 일이 안 된다고. 옳은 말씀. 바다는 판타지가 없으면 말하기 상당히 빈약해지는 곳이다.

오로라다. 처음에는 구름 같기만 했는데, 움직인다. 커튼이다. 빛의 커튼이 굴곡을 만들며 꿈틀대더니 붓으로 쓸어올리듯 비백飛白을 그려낸다.
수많은 물고기들이, 멸치부터 고래상어까지 떼를 지어 춤추고 있는 것 같았다. 어쩌면 그동안 내 손에 죽은 물고기 영혼들이 나타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잠깐 들었다.

안녕 우리 배. 하선을 하자 문득 눈에 띄는 게 있다. 나는 바닥을 내려다보면서 말했다. “너 참 오랜만이다.” 길바닥에는 나의 그림자가 있었다.

『내 술상위의 자산어보』, 2014, 글 한창훈, 문학동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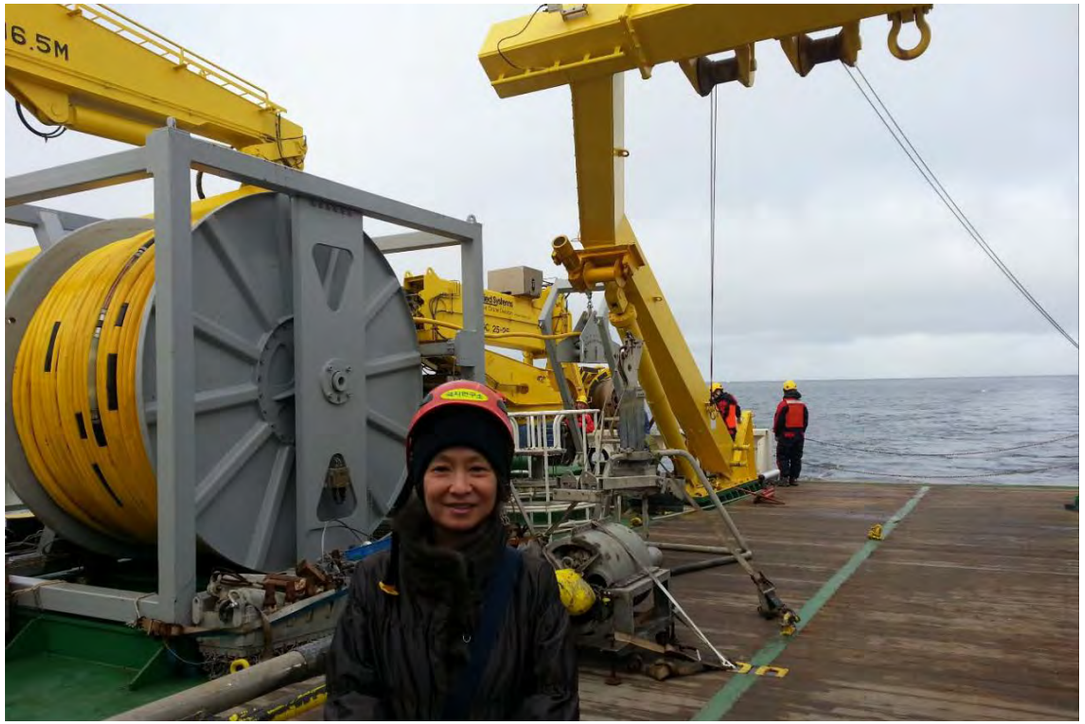
이나미(문학)

2014년 아라온호 승선 레지던시(극지연구소·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나미는 2014년 아라온호 승선 레지던시에
참여했다. 2013년 출간된 <섬, 섬옥수>에서
땅끝섬을 배경으로 섬에서 나고 자란 원주민과
외지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연작소설을 선보였다.
극지 레지던시 이후 '북극곰'과 '남극 펭귄'을 각각
주인공으로 한 미발표 장편동화 두 편이 있다.





출항을 알리는 기적 소리가 울리면서 거대한 아라온 호가 서서히 배로우 항구를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캐나다 영해 보퍼트해를 향해 미끄러지듯 대양으로 나간 아라온 호는 검푸르게 출렁이는 파도를 헤치며 힘차게 전진했다. 백야로 해가 지지 않아 시간을 가늠할 수 없는데다 사방을 둘러봐도 보이는 것은 바다와 하늘 뿐, 새 한 마리 날지 않는 드넓은 북극해를 바라보며 가슴 벅찬 감동에 젖어들었다.

출항한지 사흘 만에 8월 29일 자정, 캐나다 보퍼트해의 연구 지역 경계지점에 도착하자 해저 지형과 해저 환경을 탐지하는 다중빔 해저측심기, 천부영상탄성파 담지기, 수중음향 측심기등 첨단 장비들이 가동되면서 긴장감마저 감돌았다. 배가 느린 속도로 전진하는 동안 연구원들은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분초를 다투며 각자 분야의 탐사에 열중했다. 정해진 시간 내에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시간과의 전쟁을 벌이는 연구원들의 숨 가쁜 교신과 표정, 그들을 도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승조원 여러분들을 보며 북극해저 탐사에 동행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가슴이 뿌듯했다.

나는 종일 각종 장비를 해저(海底)로 내리고 올리는 작업으로 분주한 선미(船尾)와 선체의 조종실인 선교(船橋), 지구물리 연구실, 해양장비실, 컴퓨터실을 기웃거리며 분주하게 탐사 준비를 하는 연구원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관찰하고 틈틈이 노트에 기록하는 게 주된 일과였다.

2항차에서는 대륙붕 해저 지층과 해저 지형의 상태를 탐지하는 지구물리 탐사와, 메탄가스 방출 현상을 연구하는 해양물리탐사, 해양과 대기 사이의 메탄 이동 현상을 연구하는 해양- 대기 측정, 그리고 해양 퇴적물을 채취해 오랜 세월 동안 퇴적층의 변화를 연구하는 시추 코아 탐사가 주된 과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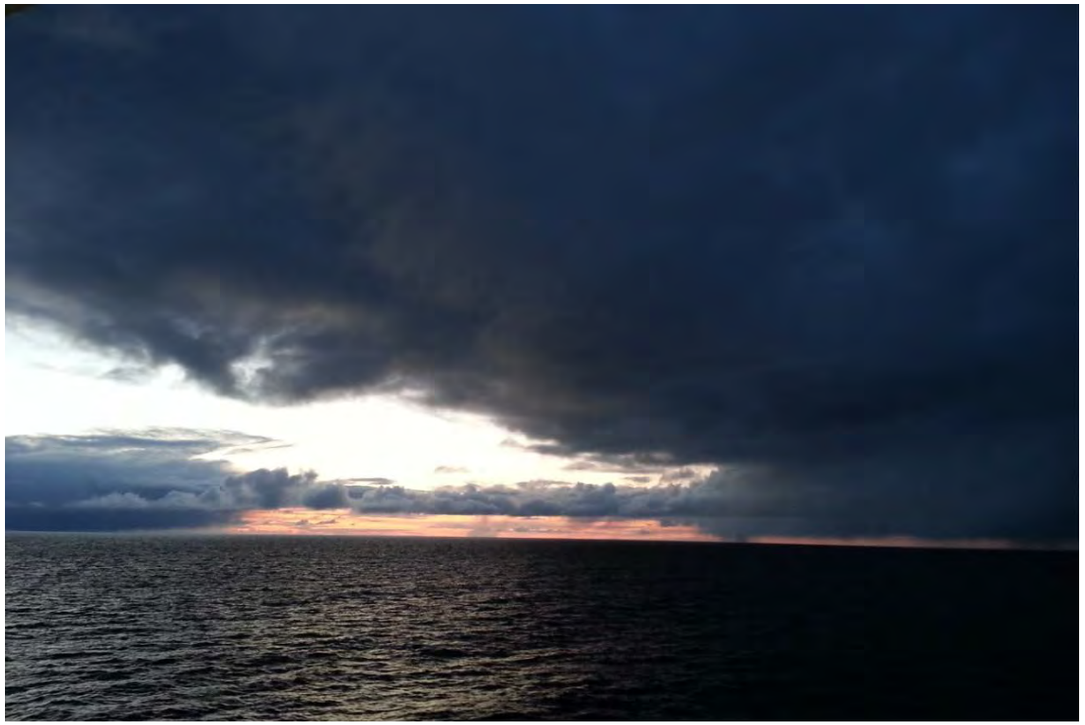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다중채널 탄성파 탐사로 대형 음파 발생기인 에어건 8발을 시차를 두고 발파하는 것인데, 이때 1Km 근방에 고래가 출현할 경우 발파를 중지해야만 한다. 고래가 놀라 건강에 해를 입을까, 해양생물 보호 차원에서 캐나다 여성 생물학자와 원주민인 이누이트족 두 명등 총 3명의 MMO 감시원이 24시간 쌍안경으로 고래 출현 여부를 감시하면서 그들의 허가가 떨어져야 발파를 할 수 있다.

에어건의 충격파가 워낙 커서 깊은 수심에서 터져도 배 안에서 터지는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발파음이 해저에 반사되는 탐사 측선이 컴퓨터 모니터에 그려지면 해저 지층 구조를 볼 수 있는 다중채널 탄성파 탐사는 장소를 옮겨가며 며칠 동안 계속됐다. 100Km 옮긴 지점에서 다시 에어건을 발사하던 중 갑자기 발파 중지 명령이 떨어졌다.

아라온 호 선수 우현 바로 아래 고래가 등장한 것이었다. 마침 선교(5층 조종실)에서 사방을 둘러보던 나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 고래를 내려다보는 행운을 누렸다. 햇빛에 반사돼 짙은 브라운 톤의 등을 드러낸 고래는 거대한 잠수함 같았는데 MMO 여성 생물학자 말로 2살쯤 된 아기고래란다. 다 자란 어미는 무게가 무려 100톤, 몸길이 18-19m라니 얼마나 클지 상상이 안 됐다. 발파를 중단한 채 한 시간 동안 주변을 관찰했지만 에어건 한 방에 놀란 아기 고래가 죽을힘을 다해 헤엄쳐 갔는지 MMO의 쌍안경에서 사라지자 다시 발파 허가가 떨어졌고 탐사는 계속 진행됐다.

그 즈음 폭풍과 악천후 예보가 있더니 아니나 다를까. 사흘 동안 4미터를 넘는 집채만 한 파도가 계속 선체를 때렸고 최대 풍속 40Knots를 넘는 비바람으로 정점 작업과 탄성파 탐사는 중단됐지만 그 와중에도 해저 지형도를 그리는 멀티 빔과 천부 영상 자료를 구하기 위한 탐사는 계속됐다.





©이나미

배는 롤링과 피칭을 반복하며 심하게 기우뚱거려 복도를 걸을 수도 없고 침대에 누우면 바닥에 떨어지기 일쑤였으며 냉장고 문이 자동으로 열려 내용물이 굴러다녔다. 언제 어디서 무엇이 날아올지 모르니 실내에서 이동시 주의하라는 선내 방송이 나왔다. 멀미가 심한 연구원들은 식사도 못하고 누렇게 뜬 얼굴로 폭풍이 가라앉기만 기다렸다. 다행히 멀미를 안 하는 나는 누워서 바이킹 타는 느낌으로 그 상황을 느긋이 즐겼다.

그리고 수시로 선미에 나가 순식간에 집어삼킬 듯 다가왔다가 아슬아슬하게 뱃전에서 부서지는 파도와 물보라를 보며 북극해의 위력을 생생하게 체감했다. 그리고 엄청난 비바람과 파도 속에서도 전진하는 아라온 호의 의연함에 마음속으로 경의를 표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연구 과정을 다 기록할 순 없지만 한 가지 큰 의미 있는 성과라면 정점 탐사 도중에 수심 740m 진흙화산에서 가스 하이드레이트 시료를 채취했다는 점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캐나다를 비롯해 미국 연구팀이 여러 차례 퇴적물 시추 작업을 했지만 발견하지 못했던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우리나라 팀이 처음으로 채취했다는 사실에 전 연구원과 승조원은 물론 선장님을 비롯해 식당에서 매 끼니 정성스럽고 훌륭한 식사를 준비해주었던 주방 식구들까지 달려와 큰 관심을 보였다.

일명 '불타는 얼음'으로 불리는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차세대 에너지로 각광을 받는데, 그날 채취한 시료는 덩어리가 워낙 작아 불이 붙진 않았지만 그 지역에서 우리가 최초로 발견했다는데 의미를 부여하기에 충분했다.

이번 탐사는 한국과 캐나다, 미국 3개국의 공동 연구프로그램을 우리 국적의 쇄빙선 아라온 호를 타고 캐나다 보퍼트 해역에서 해양지질학, 지구물리학, 해양학을 관찰하면서 지질학적 작용으로 머잖은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지질 재해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처하는 연구의 토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탐사였다. 비록 해양학이나 지구 물리학에 문외한이지만 아라온 호 승선 레지던스에 참가함으로서 지구 온난화로 곧 밀어닥칠지도 모르는 엄청난 재앙의 심각성과 병들어가는 북극의 실태를 깨달은 좋은 계기가 됐다. 더불어 앞으로 더욱 남, 북극 극지의 실상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면서 병 들어가는 지구의 신음에 귀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항해일지, 2014, 글 이나미

김남중(아동문학)

2016년 아라온호 승선 레지던시(극지연구소·한국문화예술위원회)

김남중은 2016년 아라온호 승선 레지던시에
참여했다. 여행과 모험이 가장 좋은 공부라고
믿는 작가는 아라온호를 타고 북극에 다녀온 후
<남극곰>을 집필하여 2023년에 출간했다. "남극곰",
"북극펭귄"처럼 생태계를 파괴하려는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아내며 환경의 위기의
주체인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은우는 동그란 비행기 창문으로 밖을 바라보았다. 멀어지는 쇄빙선이
희미하게 보였다. 반대쪽 창밖 먼 하늘 아래 반짝이는 것은 수평선인지
빙평선인지 아득하기만 했다.

내가 아주 통통한 어린이였을 때 어른이 되면
꼭 해 보고 싶은 게 많았다. 자전거로 우리나라
한 바퀴 돌기, 돛단배 타고 바다 나가기, 비행기
조종하기, 걸어서 다른 나라 가 보기, 진짜 곰 만나기
등등. 그중에서 내가 가장 하고 싶었던 건 북극
탐험이었다. 춥고 외롭고 어두운 곳인 줄 알면서도
그곳에 꼭 가고 싶었던 이유는 북극곰 때문이다.
나는 동물을 좋아하는데 특히 곰을 좋아하고 그
가운데 북극곰을 가장 사랑한다. 북극곰 달력을
모았고 인형도 샀고 북극곰이 찍힌 2달러 동전을
보고 덤으로 캐나다도 좋아하게 되었다.

동화작가가 되어 가장 좋은 점은 어릴 적 꿈꿨던
일들을 척척 할 수 있다는 거다. '동화를 쓸
거니까.'만큼 좋은 이유는 없다. 가족들이 때때로
의심하는 것 같아 눈치가 보이지만 모험을 마치고
돌아와 동화를 쓰면 다음 꿈에 또 도전할 수 있다.

북극에 갔을 때도 그랬다. 우리나라 최초의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를 타고 극지연구소
박사님들과 여름 북극해를 돌아다녔다. 박사님들은
각자 다른 실험을 하느라 바빴는데, 옆에서 지켜보던
나도 지구온난화로 북극이 녹아 가고 있다는 징후를
해저 토양에서, 해양 동물 채집에서, 해빙에서 속속
확인할 수 있었다.

점심 먹고 나서 두 시간은 나만의 북극곰 찾기
시간이었다. 쇄빙선이 얼음을 깨며 나아가는 동안
뱃머리에 홀로 서서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혹시 지나갈지 모를 북극곰을 날마다 기다렸다.
며칠을 뱃머리에 서서 얼음 위를 바라봤지만 정작
북극곰을 만난 건 새파란 바다에서였다. 얼음 조각인
줄 알았던 덩어리가 가까워지자 헤엄치는 북극곰이
되었다. 북극곰은 도망치지도 않고 뱃전 아래로
다가와 나를 쳐다보았다. 평생 꿈꿨던 순간이었다.
몇 미터 아래에 있는 북극곰과 눈길을 주고받았지만
마냥 행복하지는 않았다.

얼음이 없어 사냥을 못 해 바다로 나온 배고픈
북극곰. 가장 가까운 육지인 시베리아는
300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었다. 서울에서 광주나
대구까지 거리를 헤엄친 북극곰에게 나는 아무것도
해 줄 게 없었다. 야생 곰에게 먹이를 주는 건 금지된
일이니 어서 사냥할 수 있는 곳을 발견하기를,
범고래를 만나지 않기를, 며칠을 헤엄만 치다 힘이
빠져 가라앉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잠시 뒤 배는 다시 속도를 올렸다. 바다 위에 둥둥
떠서 나를 바라보던 북극곰의 까맣고 동그랗고
반짝이는 두 눈이 점점 멀어졌다. 낮은 하늘과 푸른
바다 사이에 하얀 마침표 같던 그 북극곰이 내가
만난 첫 번째 야생 곰이었다. 그 뒤로 불곰을 만나러
사할린에 갔고, 반달곰을 보고 싶어 지리산에도
다녀왔다. 곰이 나오는 동화를 좀 더 써 보고
싶어서다. 곰이 우리에게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서다.

시간이 갈수록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가뭄도
홍수도 더위도 폭설도 심해지고 있다. 사람이야
스스로 만든 결과니 어쩔 수 없다 쳐도 왜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녹는지, 숲이 사라지는지, 먹이가
줄어드는지 곰들은 모를 것이다. 그 둥근 머리를
갸우뚱하다 주린 배를 깔고 조용히 눈을 감을
것이다. 세상의 모든 곰들에게 미안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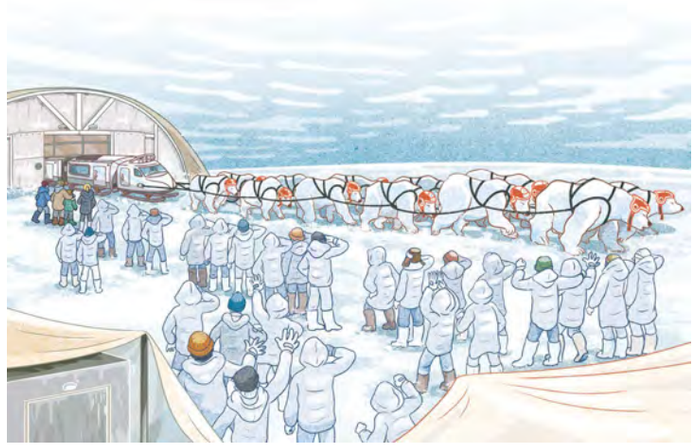
그때 내가 만났던 북극곰은 아직 살아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남극곰' 시리즈를 썼다. 아울러
아문센의 북극곰 썰매 시도는 사실이지만 곰 조련사
비에른의 행적은 작가의 상상임을 밝힌다.

북극곰이 헤어질 때 하는 인사로 글을 마무리한다.
모두들 Have an ice 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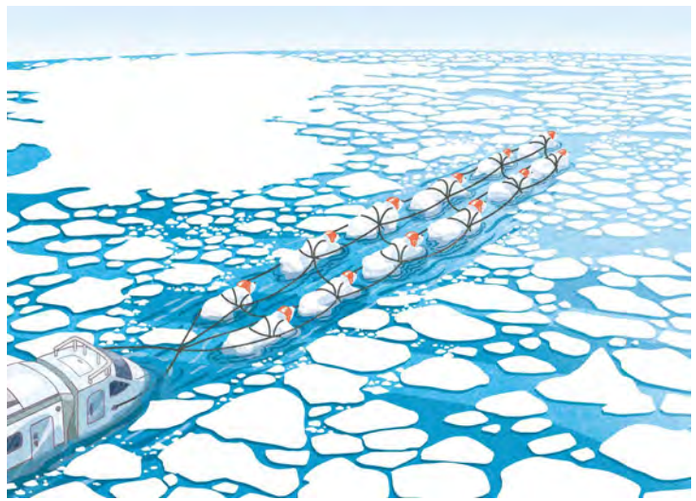
반달곰이 사는 지리산을 바라보며
김남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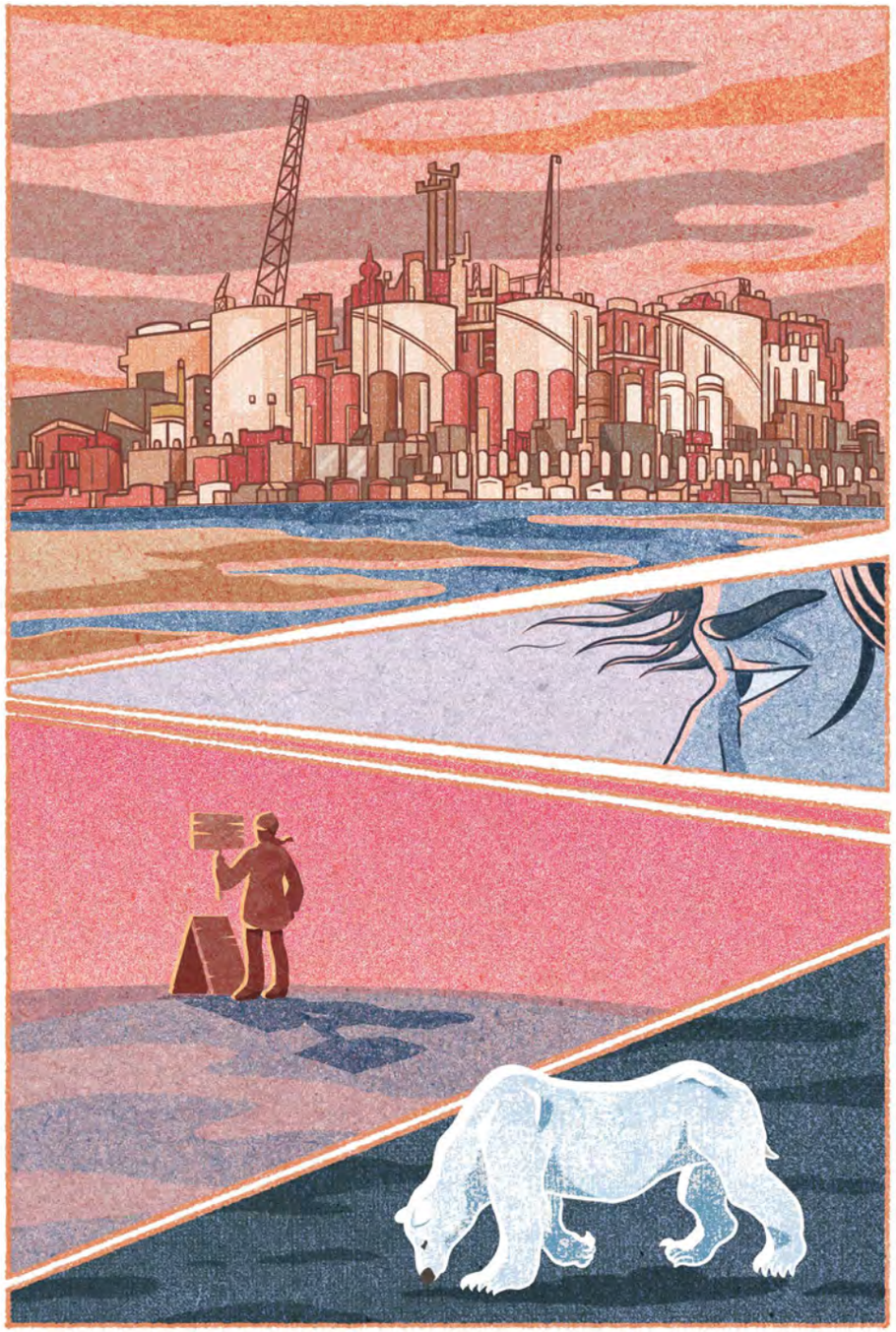
은우와 아빠가 올라타자 트럭
아저씨가 물었다.
"세상의 끝 보러왔소?"
"예?"
"배로에 볼 게 그거 말고 더 있나?
이 길 따라 쭉 가면 세상의 끝이
나와요. 북극곰 나올지 모르니까
걸어가지 말고 사륜구동 차를
빌리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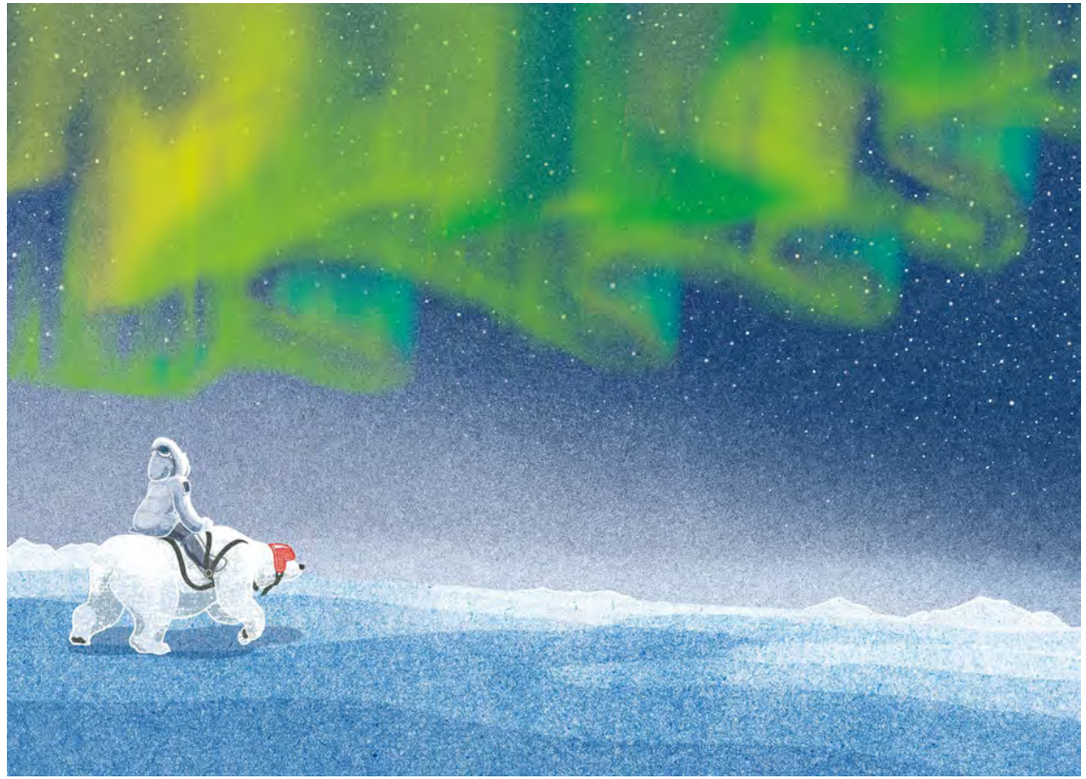
북극곰이 끄는 북극 열차는 고속
열차처럼 네 칸이 줄줄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래서 썰매가 아닌
열차라는 이름이 붙었다. 바퀴
대신 스노모빌처럼 완충장치가
있는 활주부가 달려 있었고 맨
앞 조종실에는 넓고 투명한 강화
플라스틱 창이 있었다.



흔들리던 북극 열차가 물 위로
떠올라 곧 중심을 잡았다.
북극곰들은 넓은 발로 헤엄을
치며 열차를 끌었다. 문을 꼭 잠근
열차에는 물 한 방울 새어 들어오지
않았다.



지나친 석유 소비로 지구 표면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북극의 얼음은 해마다 더 많이 녹아내렸다. 이대로라면 몇십 년 지나지 않아 북극곰이 멸종하고 만다. 북극곰의 멸종은 인류를 멸망시킬지도 모르는 대재앙의 신호가 될 것이다.



초록빛 오로라가 베일처럼 넘실거리며 별빛을 가리면 별들도 지지 않으려고 더욱 반짝거렸다. 하늘 끝에서 끝으로 이어진 거대한 오로라는 우주를 산책하는 신의 옷자락 같았다. 오로라는 시간을 천천히 흐르게 했다.

『남극곰』, 2023, 글 김남중, 그림 홍선주, 문학동네

오주영(아동문학)

2017년 아라온호 승선 레지던시((극지연구소·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오주영은 2017년 아라온호 승선 레지던시에 참여했다. 북극 항해 후 여우, 호랑이, 북극곰 등 멸종위기의 동물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빨간 여우의 북극 바캉스>를 집필했다. 배고픈 곰, 바다 쓰레기, 고래 사냥, 천연가스 등 가볍지 않은 주제를 동물들의 북극 항해기로 그려내며 환경의 위기에 대해 피력하는 작품이다.



푸른 바다를 헤엄치던 물범이 뜰채 안에서 펄떡펄떡 뛰네.

빨간 여우가 박수를 쳤습니다. 북극곰이 가슴을 펴고 말했습니다.

"나는 물범이 좋아요. 물범은 동글동글한 얼굴을 구멍으로 내밀어요. 얼음 위는 뒤뚱뒤뚱 걸으면서 물에 들어가면 우아하게 헤엄치죠."

"북극곰 씨, 물범을 좋아하는데 잡아먹는다고요?"

"여우 씨는 싫어하는 걸 먹을 수 있어요?"

빨간 여우는 더듬더듬 대꾸했습니다.

"나는…… 고래가 좋지만 잡아먹고 싶지 않아요."

"좋아해서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잡아먹으니까 좋아하는 거죠. 우리는 오랫동안 물범을 지켜봤어요. 물범이 날쌔면 우리가 놓치고, 우리가 날쌔면 물범이 잡혔죠. 우리는 꼭 먹을 만큼만 물범을 사냥해 왔어요."

북극곰이 앞발로 입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배가 왕만두처럼 불룩해졌습니다.

"후우, 이렇게 실컷 먹은 게 얼마 만인지 몰라요."

담비가 말했습니다.

"지구가 점점 더워져 해빙이 녹은 탓이구먼유. 우리가 연료를 쓸수록 더 더워지겠쥬."

호랑이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담비 박사, 연료가 없으면 공장이 돌아가겠어? 우리가 앉는 의자도, 우리가 먹는 통조림도, 우리가 쓰는 기계 장치도 다 공장에서 만드는 거 몰라?"

"그건 그렇지만유……."

"고드름호는 어떻고? 연료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깡통일 뿐이야. 북극 탐험은 꿈도 못 꿔."



늑대가 고드름호를 해빙 너머에 세우자, 북극곰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북극곰은 슉슉 헤엄쳐 와 고드름호 옆구리를 텅 텅 두들겼습니다.

"실례합니다. 고기 열 근만 파세요."

모두 어리둥절해했습니다.

"고기 다섯 근하고 생선 열 마리도 괜찮아요."

호랑이가 벌컥 소리를 질렀습니다.

"북극곰 씨, 눈이 비뚤어졌어? 우리 배는 슈퍼마켓이 아니야."

북극곰이 공손히 말했습니다.

"잘못 알았군요. 죄송해요. 밥 한 끼 부탁해도 될까요? 종일 굶었어요."

호랑이가 심술궂게 말했습니다.

"그건 댁의 사정이고. 나한테 밥 맡겨 놨어?"

담비가 안경을 추켜올리며 호랑이에게 말했습니다.

"호 대장님, 잠깐만유. 북극곰 씨한테 북극 얘기 를 듣고 싶어유. 책에 없는 이야기를 해 주지 않겠어유?"

"담비 박사는 알고 싶은 게 많아서 탈이야."

호랑이가 골치 아픈 얼굴로 고드름호 사다리를 내려 주었습니다. 북극곰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북극곰이에요. 이 근처에 살아요."

북극곰의 배는 부풀었다 찌그러든 풍선처럼 우글쭈글했습니다. 푸석한 흰 털은 듬성듬성 빠져 있었습니다. 등에 진 커다란 가방은 홀쭉했지요. 가방에는 대야보다 큰 뜰채가 꽂혀 있었습니다.

식당으로 간 북극곰은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아예 통조림 선반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빨간 여우는 북극곰이 반가웠습니다. 바캉스 친구를 사귈 기회였습니다.

"내가 통조림을 따 줄게요."

빨간 여우가 따개로 쓱쓱 깡통을 따면 북극곰이 안에 든 생선을 날름 삼켰습니다. 빨간 여우가 쓱쓱 북극곰이 날름, 쓱쓱 날름, 쓱쓱 날름. 북극곰 옆자리에 깡통이 산처럼 쌓였습니다.

"와, 이게 다 들어가요?"

빨간 여우가 놀라자 북극곰이 말했습니다.

"열흘 동안 사냥을 못 해서 배 속에 들어갈 자리가 넉넉해요."

"북극곰 씨, 열흘이나 굶었어요?"

북극곰이 말했습니다.

"갈수록 사냥감이 안 보여 걱정이에요. 해빙이 줄어서 그런가……. 내가 어릴 적에는 이 근처 바다를 해빙이 꽉 채우고 있었어요. 우린 해빙 위에서 낮잠을 자고 사냥을 했어요. 해빙 위에는 바다 로 통하는 조그만 구멍이 있었죠. 고 조그만 구멍 이 뭔지 알아요?"

"무슨 구멍인데요?"

"물범 구멍요. 물범들이 숨을 쉬려고 만든 구멍이죠. 크고 두툼한 해빙 안쪽에 물범들의 얼음 별장이 있거든요."

빨간 여우와 담비와 호랑이는 북극곰의 이야기 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우린 구멍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숨 쉬러 올라오는 물범을 커다란 뜰채로 잡아챘어요."

북극곰은 가방에서 뜰채를 꺼내었습니다. 휙휙 휘두르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빨간여우의 북극 바캉스』, 글 오주영, 그림 심보영, 사계절



세 고래가 숨을 뱉었습니다. 후우우우우. 폭풍처럼 거센 숨이 고래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바다가 간지러워 죽겠다는 듯 몸을 출렁였습니다.

고래들이 경쟁하며 끝까지 숨을 쥐어짜자, 뭔가가 입에서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부서진 돛, 찌그러진 기타, 냄비와 프라이팬, 때 묻은 인형, 우산과 낡은 모자, 밑창이 떨어진 신발, 네모 세모 나무 블록…… 조그만 은색 비행접시는 바다로 처박혔다가 비틀비틀 하늘로 날아오르더니 저 멀리로 쏜살같이 날아갔습니다.

김세진(시각예술)

2018년 남극세종과학기지 레지던시(극지연구소·한국문화예술위원회)



김세진은 2018년 남극 세종과학기지를 다녀왔다.
2048은 남극에 관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영토 “G”에 관한
픽션의 이야기이다. 2048년은 남극조약이 만료되는
해로 작가는 실제 남극에서 채집된 현실적인
영상들과, 접근불가한 남극의 풍광을 3D 그래픽
영상으로 재현하여 우리의 상상 속 남극이 가진
허구성과 실재성 사이의 간극을 묘사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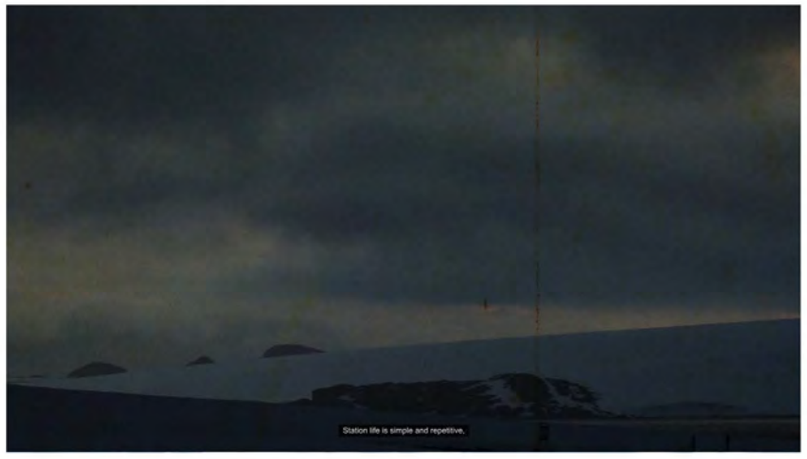

그 곳에는 다양한 인종 그룹이 건축한 스테이션들이 입점해 있는데




These places harbor stations built by various race groups.


스테이션에서의 생활은 매우 단순하고 반복적이지만




Station life is simple and repetitive.









2048, 2019, 3채널 비디오, 스테레오 사운드, 10분 25초

2048은 남극에 관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영토 “G”에 관한 픽션의 이야기이다. 2048년 남극 조약의 시효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시작되는 2048은1959년부터 2048년까지 남극 대륙과 해양을 평화와 연구의 목적으로만 이용하고, 영유권 선언 금지와 인류 공동의 유산에 대한 보호에 관한 조약 및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남극 조약의 내용과 남극 세종기지에 2주간 머물렀던 기간 동안 채집된 지극히 현실적인 영상들과 기지내에서의 규정과 사적 기록을 바탕으로 한 나레이션을 같은 기간 기지에 머물렀던 터키의 지질학자인 야무르(Yamur)의 목소리를 통해 전달한다. 세계에서 5번째로 큰 대륙이자 98%가 평균 2,000m두께의 얼음으로 뒤덮여 있지만 쿠웨이트나 아부다비보다 최소 2,000억 배럴 이상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남극은 모순적으로 지구 온난화로 얼음이 녹아내림으로서 그 자원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을 세계 강대국들이 주목하고 그 소유에 대한 야망을 드러내고 있는 지정학적 영토이다. 이상과 현실의 첨예한 대립이 양가적으로 존재하는 땅인 남극은 우리의 실재하는 현재와 미래의 유토피아이자 동시에 디스토피아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2048은 실제로 남극에서 채집된 지극히 현실적인 영상들과 기후, 접근불가령등 여러가지 조건으로 사실상 촬영이 불가능한 남극의 풍광을 3D 그래픽 이미지 영상으로 실제보다 더 아름답게 재현하여 우리의 상상과 이상 속의 남극이라는 영토가 가진 허구성과 실재성 사이의 간극을 묘사하고자 했다. 2048은 3채널 영상으로 분리되어 각각의 스크린에서 독자적으로 상영되지만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하나의 풍경으로 보이기도 하여 우리가 세상을 지각하는 방식의 사각지대를 공간과 더불어 영상 설치로 표현하고자 했다.

염지혜(시각예술)

2018 남극세종과학기지 레지던시(극지연구소·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염지혜는 2018년 남극 세종과학기지를 다녀왔다.
<검은 태양>은 그간 눈앞에 보이는 이미지 이면에
얽혀있는 관계에 대해 표현했던 작가의 전작의
연장선에 있다. 평화로운 남극의 실사무빙 이미지
위에서 재미있게 노는 꼬마유령 캐스퍼와 물개가
보이지만 이는 정치적이고 권력이 숨어있는 남극의
실상을 드러낸다.







〈검은 태양〉은 관계와 균형과 균열에 관해 말한다. 자연에 대한 제어와 그것의 불안정성, 인간관계의 통제와 그것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과학의 권력과 성역화 그리고 관성적인 믿음에 대한 의심 등을 암시하고 있다. 2018년 남극 세종기지를 방문하여 촬영한 영상을 주요 푸티지로 사용하면서, 오로지 과학적 활동만 할 수 있는 남극이 사실상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정치적인 공간임을 드러낸다. 국력을 바탕으로 한 과학 기지는 마치 자연과학의 성지가 되면서 인간이 과학 활동을 위해 벌이는 행위를 정당화한다. 즉, 계몽주의 이래 과학은 우리를 세계에 관한 비밀과 마법과 무지로부터 해방했지만, 과학에 대한 강력한 믿음과 침범 불가한 영역이라는 신화는 어쩌면 그것에 절대 권력을 부과하고 그에 따른 모든 행위에 우리의 눈을 감게 하는지도 모른다. 〈검은 태양〉은 완벽한 균형이 불가능함에도 다시 한번 균형을 맞추고자 한다. 두 개로 분할되는 스크린, 인체의 평형추를 담당하는 귀, 프랑스 이민자의 한국어와 불어 사이의 공백, 극지와 또 다른 형태의 극지, 자연과 인간, 과거와 현재 등 처음부터 분리된 게 아닌 두 사이를 가로지르며 미묘한 균열 사이를 걷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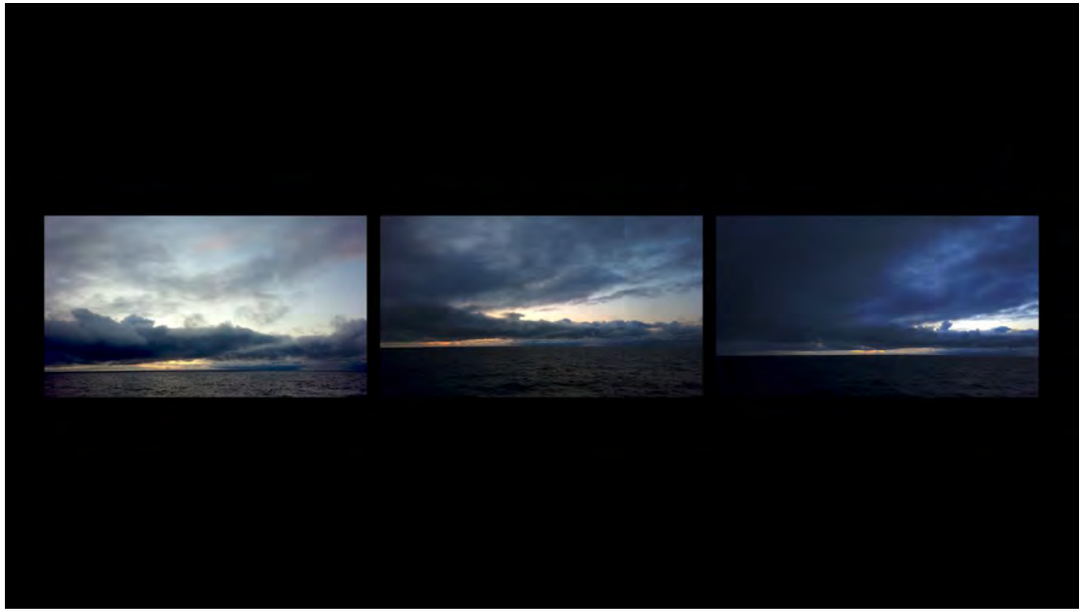




검은 태양, 2019, 싱글채널 비디오, 13분 31초

손광주(시각예술)

2019년 아라온호 승선 레지던시(극지연구소·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손광주는 2019년 아라온호 승선 레지던시에
참여했다. 3채널 비디오 설치로 풀어낸 아라온호
항해기이자 부분적으로 낭독극의 형식을 빌린
<파이돈>은 기후 변화와 자원 개발의 각축장으로
사라짐의 위기에 처한 북극해의 현재를
소크라테스의 최후의 모습에 빗대어 그린다.





파이돈 - 영혼의 불멸에 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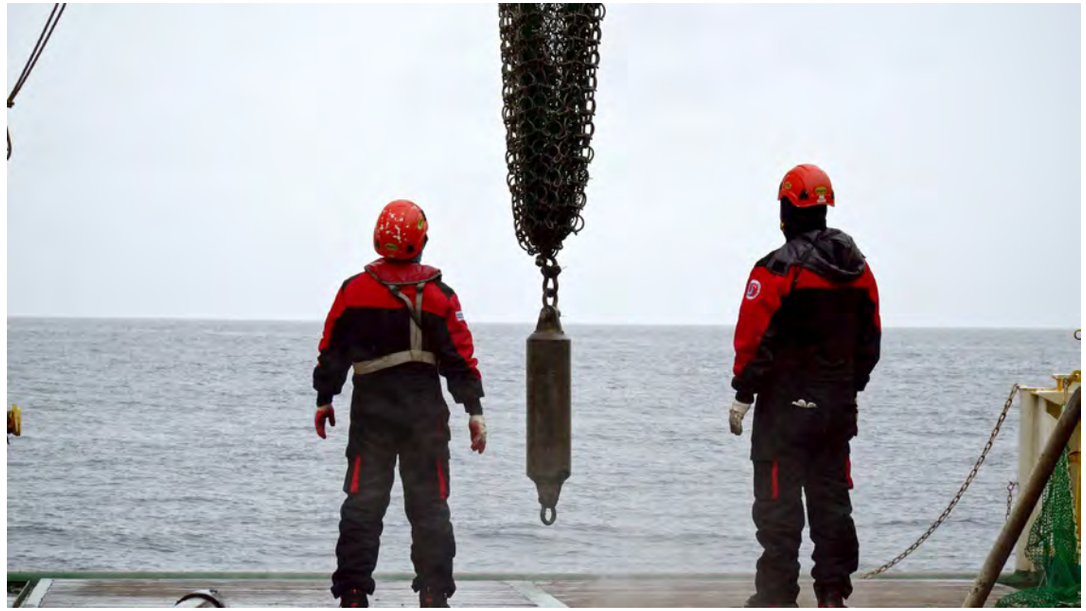
플라톤의 중기 대화편 중 하나인『파이돈』을 처음 읽은 건 유난히 전쟁의 공포에 예민하게 반응하던 어린 시절의 일이었다. 그 시절 나는 배우고 익히는 게 한없이 즐겁고 '잘 살아 보세'를 꿈꾸며 '하면 된다'라는 신념으로 살아가는 평범한 아이였다. 그러나 분단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시대에 전쟁의 공포가 일상을 압도하는 상황이 빈번해지면서 밝고 희망찬 미래를 꿈꾸던 나는 일찌감치 삶에 대한 무력감을 느끼게 되었고 나라는 존재 의미에 대한 고민은 깊어 가기만 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읽게 된『파이돈』은 삶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만 같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 한줄기 빛과 같은 책이었다. 진리를 위해 철학 하는 자유를 포기하지 않으며 부당한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의연함을 잃지 않는 소크라테스의 고결한 태도는 나라는 인간의 내재적 가치와 삶의 가치를 다시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물론 책 속에 묘사되어 있는 철학적 논증들이 모두 이해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죽음은 철학적 삶의 완성이며 철학자는 언제나 죽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소크라테스의 결론은 부조리한 세상에서 내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처럼 보였다.

『파이돈』을 다시 읽은 건 오랜 시간이 흘러 엄마의 죽음을 맞이한 이후였다. 더 이상 소크라테스와 그 제자들의 영혼불멸에 대한 논변들은 어릴 때만큼 명쾌하게 다가오지 않았다. 제자들은 같은 질문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소크라테스의 말은 별다른 비판이나 검토 없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동의를 얻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소크라테스의 죽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슬프게 다가왔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논변과 행위들이 어찌 보면 예정된 죽음 앞에서 치러지는 하나의 이별 의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물론 이런 변화는 책을 읽는 그 순간의 나의 상황과 태도에서 비롯된다. '영혼의 파괴를 불러오는 육체의 죽음과 분해 '라는 개념이 이미 머리 속에 단단히 박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류임을 증명 받고 싶어하는 제자들의 마음은 엄마와의 이별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시 읽은『파이돈』에서 소크라테스 또한 영혼불멸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느껴 지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는 주문을 외 듯 그렇게 믿자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은 고귀한 모험이라고 말하며 독약을 마신다.

2019년 극지연구소 협력 하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기획한 쇄빙선 아라온호 승선 및 극지탐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유는 무엇보다 엄마를 추모하기 위함 이었다. 육체 속에 갇혀 있는 영혼이 속박에서 벗어나 어딘 가에 존재한다면 그 곳은 북극일 것이라는,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생각에서 출발했다. 아라온호에 승선하기 전 나는 알래스카를 로드 트립하며 오직 산란을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강으로 돌아오는 연어처럼 나름 경건한 의식을 치르듯 일종의 순례를 마쳤다. 한 달 가량 아라온호를 타고 북극해를 돌아보며 나는 내가 상상하던 북극의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북극은 이미 죽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다시『파이돈』을 떠올렸다.

3채널 비디오 설치로 풀어낸 아라온호 항해기이자 부분적으로 낭독극의 형식을 빌린 <파이돈>은 기후 변화와 자원 개발의 각축장으로 사라짐의 위기에 처한 북극해의 현재를 '죽음이 철학적 삶의 완성'임을 논증한 소크라테스의 최후의 모습에 빗댄다. 아라온호의 일상과 연구활동, 그리고 북극해의 풍경을 순례와 전례, 그리고 묵상이라는 비가시적인 추도식의 장치로 재구성하여, 영혼 불멸에 관한 소크라테스의 믿음을 과거를 근원적으로 반복하는 자연 풍경으로부터 시각적으로 논증하고자 하였다. 이는 멀지 않은 시간 속에 엄마를 잃은 슬픔을 치유하기 위한 애도 작업의 일환이기도 했다. 점점 사라져가는 북극의 현실을 지켜보며 나는 고인과 미처 끝내지 못한 대화와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관객들에게는 이 작업이 인간과 자연, 존재와 시간, 그리고 삶과 죽음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파이돈, 2021, 3채널 비디오 설치, HD, 컬러, 사운드, 33분 15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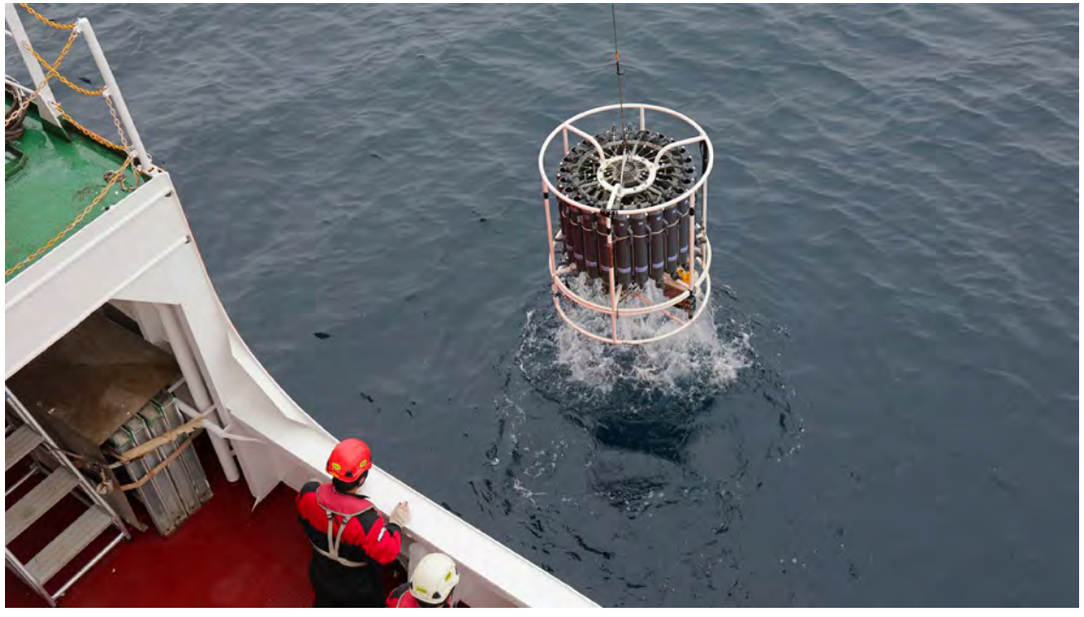
이정화(시각예술)

2020년 아라온호 승선 레지던시(극지연구소·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정화는 2021년 아라온호 승선 레지던시에 참여했다. 작가는 극지의 광활한 자연을 마주하며 그 누구의 발길도 닿지 않은 해빙을 상상하는 것으로 작품의 내러티브를 출발한다. 아무도 가지 못한 파란 땅인 올드랜드에 12세기에 등장하여 신항로개척 시대를 열었던 가짜편지 이야기를 푸티지로 가져온다.



올드랜드2, 2023, 싱글채널 비디오, 7분 30초

Void, 북극에서 떠오른 첫 단어이다. 아라온호가 극지에 다가갈수록, 북극 바다는 원형으로 회귀하고 있었다. 넘실대던 파도는 잔잔해지고, 이 세상의 디폴트 값에 가까워지는 듯했다. 어쩌다 바람조차 없는 날의 북극 바다는 거울처럼 나를 비추었다.

아라온호가 북으로 올라갈수록, 살얼음같이 얇은 빙판에서부터 1년생, 2년생 그리고 다년생 해빙은 부서진 단면으로 시간의 깊이를 보여 주었다. 해빙은 오래될수록 두껍고, 염분은 사라지며, 푸른 빛을 가진다. 그리고, 비와 얼음 땅이 만든 샘물이 여럿 있다. 나는 어떤 쇄빙선도 접근할 수 없는 북극의 정점 어딘가에 단 한 번도 부서지지도 않고, 녹지 않은 해빙을 상상하였다. 녹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파란 땅. 어딘가에 있을 것 같지만, 갈 수 없는 그 오래된 얼음 땅, 올드랜드. 그리고 그곳에 숨겨진 샘물 하나를 머릿속에 그렸다.

12세기, 지금으로 말하면 가짜뉴스 처럼 편지 하나가 유럽 전역에 유행했다. 이 편지는 에티오피아의 왕, 프레스터 존(사제왕 요한)이 자신의 기독교 왕국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의 왕국에는 사람들을 32살로 되돌릴 수 있는 보랏빛 향기가 나는 신비한 샘이 있다고 이야기 한다. 당시 유럽인들은 존의 왕국을 찾으려고,아프리카 해안 탐험 원정을 나갔다. 그렇게 이 정체모를 편지가 신항로 개척 시대를 열었다.

우리는 탐험 가능한 미지의 대상을 마주하면, 그곳을 정복할 당위를 자신이 가장 가지고 싶은 욕망에 투영시킨다. 그리고 대 향해 시대라는 이름으로 식민지 시대를 덮어두었다. 기후 변화는 다시 한번 미지의 세상을 열었다. 바다의 뚜껑이던 북극 해빙은 급격히 줄어들고, 접근 불가능했던 지구의 젊은 과거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 북극 인접 국가들은 기후변화를 위기로 보는 동시에, 북극항로 개척의 기회로 여기며 촉각을 세우고 있다. 북극은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줄 대상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꿈의 항로라는 청사진의 뒷면은 아직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12세기 당시, 존의 왕국은 찾지 못했고, 우리는 아직도 장수하는 젊음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지구에서 장수하는 동물은 북극에 모여있다. 그중 북극 스펀지(해면동물)는 해빙을 뚜껑 삼아 고요한 바다 바닥에서 끊임없이 물을 필터링 하며, 천년 가까이 살고 있다. 물을 수집한다는 것에서 나는 아라온호의 과학자들의 채수가 떠올랐다. 아라온호에는 각자 자신의 연구 증명을 위해 끊임없이 채수하는 과학자와 연구자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85일간의 항해를 마친 아라온호는 어쩌면 장수의 비밀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를 북극 해수를 실고 돌아왔다.

고대의 비밀을 간직한 북극
장수동물이 마시는 물,
그 물로 만든 올드랜드

이 올드랜드에는 신화가 있을 것 같다.



A map of Prester John_s kingdom as Ethiopia

APPENDIX:
Translation of the original Latin Letter of Unknown
원문 번역 중 일부 발췌

올드 랜드는 빙하기 이래로 단 한 번도 녹지 않았으며, 현존하는 북극 해빙* 중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바닥에 굴러다니는 얼음조각을 하나 골라 집어삼켜 보세요.
세월의 무게만큼 단단하게 응축된 올드랜드의 얼음은 하나도 짜지 않고, 미네랄이 풍부한 얼음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올드 랜드는 바다 위에서 늘 움직입니다.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밤이 없는 여름에 시야가 하얗게 번질 정도로 심한 하얀 안개를 만나야 합니다. 이 안개가 사라질 무렵, 지평선과 구름 사이에 낮게 황금빛의 띠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배에서 내려, 황금빛의 띠를 향해 72시간을 쉬지 않고 걸어가면 올드 랜드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올드 랜드에는 웅덩이가 여기저기 있습니다.
바다의 미네랄과 하늘의 비가 만들어낸 웅덩이는 지상낙원의 샘물처럼 하나같이 맑고 깨끗한 물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중 한 웅덩이는 신비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파란 얼음에 둘러싸인 그 물은 며칠을 마셔도 항상 새롭습니다. 웅덩이의 살얼음을 살짝 걷어내고 그 물을 마시면, 기분 좋은 보랏빛 향이 온몸을 감싸면서, 그 맛이 밤낮으로 시시각각 변합니다.

그 신비한 물을 한 모금을 마시면 기운이 솟아납니다. 더 마시면, 눈이 맑아져 세상이 또렷하게 보이고, 몸에서 열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피부는 부드러워지면서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이 물은 마시면서도 더 마시고 싶어집니다. 사흘 굶주리고 이 물을 마시면, 그날부터 병에 걸리지 않고, 죽기 전까지 평생 서른두 살로 살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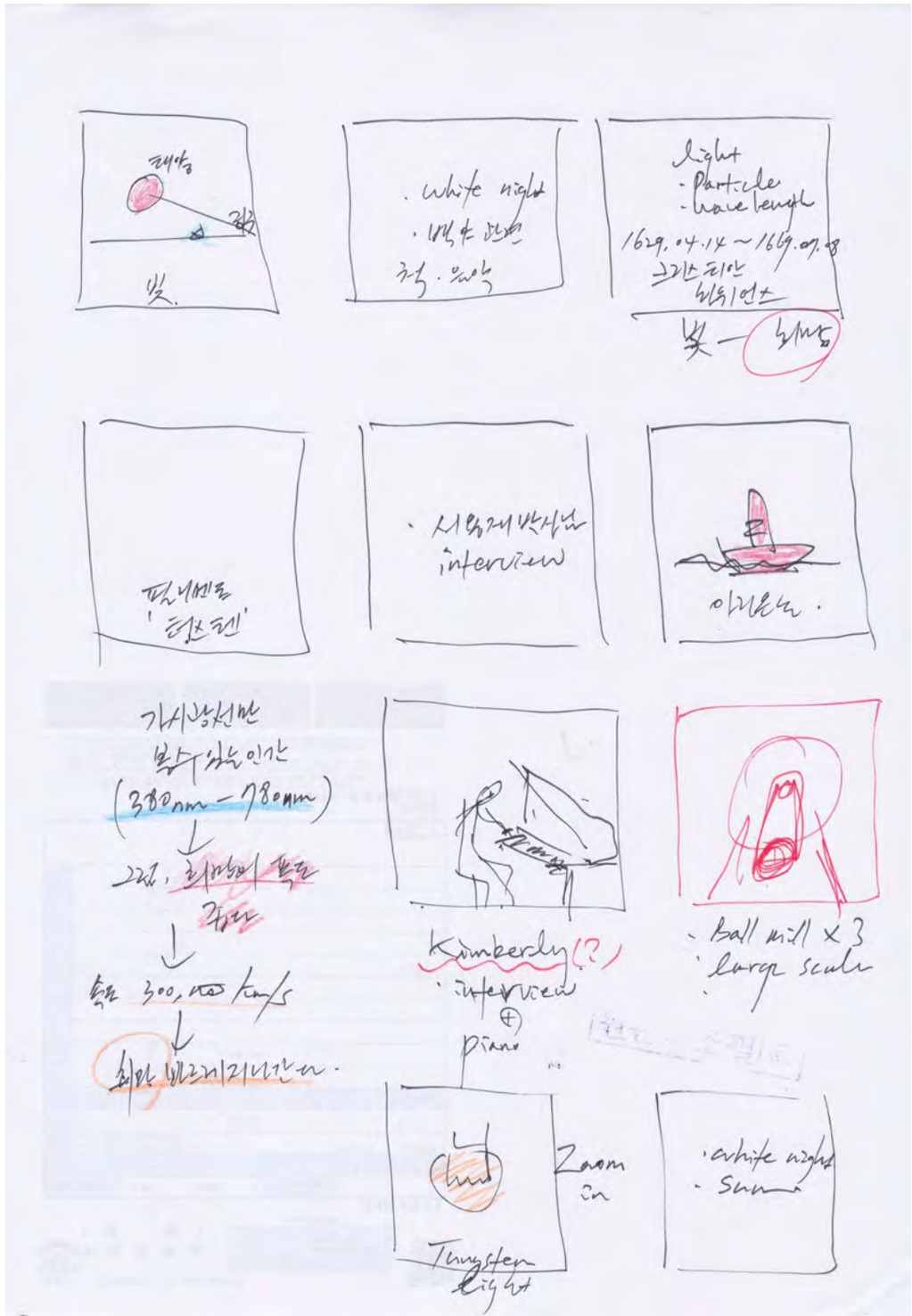
올드랜드 아래는 아주 고요한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바다생물들은 하나 같이 덩치가 크고 수명이 깁니다. 이곳에서 잡은 고래의 몸속에서는 천 년 전 유물이 나옵니다. 그 유물로 고래의 나이를 겨우 알 수 있습니다. 올드랜드 아래 헤엄치지 못하는 해저 생물들은 하나같이 길게 목을 빼고 가느다란 팔다리로 해빙과 가까워지려고 합니다.

*해빙 : 바닷물이 얼어서 된 얼음

홍기원(시각예술)

2022년 아라온호 승선 레지던시(극지연구소·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홍기원은 2022년 아라온호 승선 레지던시에
참여했다. 작가는 과학자의 끊임없는 도전, 자유로운
실험정신을 의미하는 작품 <마음을 담아라>의
영문 제목 Wolf Trap으로 예술과 과학의 접점을
모색하는 자신의 방향을 표현한다. 2022년 아라온호
승선당시촬영한과학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과학과
예술이 가지고 있는 울림,
그 교차점을 바라본다.



무제, 2023, 펜, 종이, 액자, 21x29.7cm

2022년 아라온호 승선 레지던스
북극 3항차 탐사 참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극지연구소 협력 아라온호 승선 레지던스 북극 3항차 탐사는 유빙이 없는 캐나다 해역에서 탐사가 진행되었다. 북극해 지질, 대기, 해수에서 메탄, 염도 측정을 위해 CTD, GC, MC, MC 코어 샘플 채취, 미생물, 지열 및 지구물리 데이터를 측정했다.
탐사에는 극지연구소, MBARI, 미해군리서치센터, 포스텍,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강원대학교, 경상대, 광주과기원 등 국내외 기관 연구원 44명이 참여하였다.
아라온호를 배경으로한 극지환경을 마주한 그들의 이야기를 영상에 담는다. 결국은 지구환경과 생존이다. 특수 환경을 마주하는 연구원과 미시적인 세계를 탐구하는 사이언스가 바라보는 세상은 어떠할까. 그 속에서 어떤 본질, 혜안을 찾았을까. 아직 측정중이다.

마음에 담아라 Wolf Trap (2022~23)

빙하 1cm에는 짧은 지구 역사 1,000년이 담겨 있다고 한다. 고기후를 바탕으로, 과거와 현재를 알 수 있고, 더 나아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과학이 세상과 우리의 환경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혹은 우리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까.
2022년 극지연구소 아라온호 북극3항차 책임연구원 홍종국 박사님 온라인 회의에서 3항차 주요 임무는 메탄 측정을 위한 CTD, MC, GC, 지열탐사, 지구물리 탐사를 위해, 얼음이 없는 지역, 동해 바다와 같은 곳으로 이동해 예정이라고 하셨다.
영상에 담고 싶었던, 고기후 측정 장면, 빙하 코어, 쇄빙, 백야 등은 3항차 탐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승선 후 안 사실이지만 2항차 연구에 포함되어 있었다.
홍종국 박사님은 '어떻게 보면 모든게 처음부터 배부를 수 없는데,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마음에 많이 담아 오면 어떨까요' 승선 전 회의에서 오랜 탐사 경험 바탕으로 조언해주셨다.
흥분된 나의 모습이 곳곳에서 보인 듯 하다. 이번 프로젝트의 국문 제목이기도 하다.칼세이건의 코스모스(1981)에 언급된 블라디미르 비시니액 (Wolf Vladmir Vishniac) 미생물학자는 12년간 Wolf Trap 이라 명한 화성 미생물 실험 장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하지만, 1971년 예산감축으로 취소된다.분명 실망 할 만도 한데, 그는 지구상에서 화성과 가장 비슷한 환경이라 생각되는 남극의 건조 계곡애서 연구를 계속한다.1973년 12월 10일 그는 실험표본을 가지러 벌더 balder 산으로 간다. 18시간 후 얼음절벽에서 그의 시신이 발견된다. 150미터에서 굴러 떨어졌다."202 실험실 표본 수거. 1973년 12월10일 22시 20분 토양 온도 영하 10도 대기온도 영하 16도" 이 숫자들은 화성 여름의 전형적인 기온이다.이후, 그의 친구와 부인이 실험을 계속 했고, 다양한 미생물 종들이 회수된 표본 모두에서 검출된다.영문 Wolf Trap 제목은 과학자의 끊임없는 도전, 자유로운 실험 정신을 향한다.











마음에 담아라, 2023, 싱글채널, 컬러, 사운드, 14분 32초

작가 약력

시각예술

김승영

주요 개인전

2021 전혁림미술상 수상기념전, 전혁림미술관, 통영
2021 땅의 소리, 성북구립미술관, 서울
2018 Reflection, 김세중미술관, 서울
2017 오늘의 작가-Knock, 김종영미술관, 서울
2016 Reflections, 사비나미술관, 서울
1999 기억의 방, 원서갤러리, 서울

김주연

주요 개인전

2018 김주연 · 자갈마당, 자갈마당 아트스페이스, 대구
2016 싹 그리고 정물화: 살아있는 것의 소고(小考), 트렁크갤러리, 서울
2015 유기체적 풍경 III, 무등현대미술관, 광주
2013 기억공작소-유기체적풍경, 봉산문화회관, 대구
2010 이숙(異熟)VIII, 광주롯데갤러리, 광주
2009 MetamorphosisIII, 무등현대미술관, 광주

박홍순

주요 개인전

2017 백두대간에서 사대강까지, 리각미술관, 천안
2014 강(江), 스스로 그러하다, 로터스갤러리, 경기
2012 대동여지도-계획 중간보고서, 한미사진미술관, 서울
2008 서해안, 한미사진미술관, 서울
2005 한강, 노암갤러리, 서울
1999 백두대간, 조흥갤러리, 서울

조광희

주요 개인전

2022 빼뻘 시공을 몽타주하다, 의정부문화재단 아트캠프블랙, 의정부
2022 도시 - 도心 _ 웨이브2021선정작, 서울문화재단시민청, 서울
2021 손_기억과 미래를 더듬다. 만인의 손, 경기문화재단 기획지원사업
2020 의정부 도시 프로젝트 - 느린 사유, 의정부문화재단 제 1전시장, 의정부
2019 빼뻘주름 프로젝트, 킹클럽, 의정부
2019 손손수수手手垂手, 도봉구민청, 서울

김세진

주요 개인전

2019 태양 아래 걷다, 송은아트스페이스, 서울
2015 우연의 연대기, 미디어극장 아이공, 서울
2015 Prizma Residency #1, 프리즈마갤러리, 이스탄불, 터키
2014 열망으로의 접근, 문화역서울 284 RTO, 서울
2014 유체도시, 미디어극장 아이공, 서울
2011 Life Stage, COMO빌딩 전관, 서울

염지혜

개인전

2021 [-], 송은아트스페이스, 서울
2018 모든 관점 볼텍스, 대구미술관, 대구
2015 모든 망명에는 보이지 않는 행운이 있다, 아트선재센터 프로젝트 스페이스, 서울
2014 롱 무브, 미디어극장 아이공, 서울
2007 소통하기, 대안공간컨희, 서울

손광주

개인전

2022 우화, 화이트블럭 천안창작촌, 천안
2021 파이돈, 아트스페이스광교, 수원
2018 망명토끼, JCC아트센터, 서울
2018 거울없는 방, SeMA 벙커 역사갤러리, 서울

이정화

개인전

2022 Old Land, 공간 형, 서울
2019 Love will Tear Us Apart (사랑이 우리를 갈라 놓을 것이다), 아웃사이트, 서울
2014 공간조율 (Space Tuning), 창작문화공간 여인숙, 군산

홍기원

개인전

2022 여솔 블루 시리즈 x 홍기원, 세무회계여솔, 서울
2019 Appassionata Variations 아파셔나타 변주곡,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파주
2018 Appassionata #2, Ophelia 아파셔나타 #2 오펠리아, 스페이스캔, 서울
2017 Appassionata #1, Mysterious Impression 아파셔나타 #1 설명하기 어려운 느낌, 씨알 콜렉티브, 서울
2012 홍기원 개인전, Brain Factory, 서울, 한국
2011 From One Place to Another, Galerie Plan.D, 뒤셀도프, 독일

영화

정지우

<썸바디>, 연출, 각본, 2022
<유열의 음악앨범>, 감독, 각색, 제작, 2019
<침묵>, 연출 각본, 2017
<4등>, 연출, 각본, 제작, 2016
<은교>, 제작, 기획, 연출, 각본, 2012
<모던보이>, 연출, 각본, 2008
<배낭을 멘 소년>, 연출, 각본, 2005
<사랑니>, 연출, 각본, 편집, 2005
<해피엔드>, 연출, 각본, 1999

웹툰

윤태호
『미생 시즌2 2부』, 카카오웹툰 연재중, 2021
『어린(물고기 비늘)』, 카카오웹툰, 2020
『오리진』, 저스툰, 2017
『미생 시즌2 1부』,카카오웹툰, 2015
『파인』, 카카오웹툰, 2014
『인천상륙작전』, 카카오웹툰, 2013
『미생』, 카카오웹툰, 2012
『내부자들』, 한겨례 오피니언 훅 휴재중, 2010
『이끼』, 카카오웹툰, 2007

아동문학

한정기
· 동화책
『사거리 문구점의 마녀 할머니』, 봄볕, 2021
『개나리 숲의 흰 양말』, 어린른이, 2016
『큰아버지의 봄』, 한겨레아이들, 2006
『플루토 비밀결사대』 시리즈5권, 비룡소, 2005~2013
『멧돼지를 잡아라』, 다섯수레, 2004
청소년소설『깡깡이』, 특별한서재, 2020
『나는 브라질로 간다』, 비룡소, 2008
· 그림책
『안녕, 여긴 열대바다야』, 비룡소, 2010
『남극에서 온 편지』, 비룡소, 2008
· 해양과학문고
『배는 어디에서 자나요?』, 지성사, 2012
『바다의 정글 산호초』, 지성사, 2008

김남중
『남극곰』, 문학동네, 2023
『수평선 학교』, 창비, 2017
『해방자들』, 창비, 2016
『공포의 맛』, 문학동네, 2014
『나는 바람이다』(전 11권), 비룡소, 2013~2019
『바람처럼 달렸다』, 웅진주니어, 2010
『불량한 자전거 여행』(전 3권), 창비, 2009~2023
『기찻길 옆 동네』, 창비, 2007
『자존심』, 창비, 2006

오주영
『빨간 여우의 북극 바캉스』, 사계절, 2020
『다람쥐 무이의 봄』, 창비, 2017
『제비꽃 마을의 사계절』, 창비, 2018
『수학왕 바코』, 사계절, 2017
『거인이 제일 좋아하는 맛』, 사계절, 2015
『이상한 열쇠고리』, 창비, 2009

문학

천운영
· 단편집
『반에 반의 반』, 문학동네, 2023
『엄마도 아시다시피』, 문학과지성사, 2013
『그녀의 눈물사용법』, 창비, 2008
『명랑』, 문학과지성사, 2003
『바늘』, 창비, 2001
· 장편소설
『생강』, 창비, 2008
『잘 가라 서커스』, 문학동네,2004

이나미
· 소설
『섬, 섬옥수』, 자음과모음, 2013
『수상한 하루』, 랜덤하우스코리아, 2010
『빙화』, 세계사, 2004
『얼음가시』, 자인, 2000
『실크로드의 자유인』, 1992
· 번역
『바보 이반』, 대교출판, 2007
『톨스토이 악마』, 작가정신, 2000

한창훈
· 소설집
『행복이라는 말이 없는 나라』, 한겨레출판, 2016
『그 남자의 연애사』, 문학동네 ,2013
『청춘가를 불러요』, 한겨레신문사, 2010
『나는 여기가 좋다』, 문학동네, 2009
『세상의 끝으로 간 사람』, 문학동네, 2001
『가던 새 본다』, 창비, 1998
· 장편소설
『네가 이 별을 떠날 때』, 문학동네, 2018
『순정』, 도서출판책방, 2016
『꽃의 나라』, 문학동네, 2011
『섬, 나는 세상 끝을 산다』, 창비, 2003
『홍합』, 한겨레출판, 1998
· 산문집
『한창훈의 나는 왜 쓰는가』, 교유서가, 2015
『내 밥상위의 자산어보』, 문학동네, 2014
『내 술상위의 자산어보』, 문학동네, 2014
· 어린이 책
『제주선비 구사일생 표류기』, 한겨레아이들, 2008
『검은섬의 전설』, 사계절, 2005

0.1cm:
극지로 떠난 예술가들

2023. 6. 7 - 7. 7
공근혜갤러리
서울 종로구 삼청로7길 38

0.1cm:
Artists who traveled to the poles

2023. 6. 7 - 7. 7
Kong gallery
38, Samcheongro 7 gil, Jongnogu Seoul, Korea

글
김승영
김주연
박홍순
조광희
한정기
한창훈
이나미
천운영
정지우
윤태호
김남중
오주영
김세진
염지혜
손광주
이정화
홍기원

Written by
Seungyoung Kim
Juyon Kim
Hong-Soon Park
Cho Kwang-hee
Han Jeong Gi
Hanchanghoon
Lee NaMi
Cheon Un-Yeong
Jung Ji-Woo
Yoon, Tae Ho
Kim Namjoong
O Juyeong
Sejin Kim
Ji Hye Yeom
Kwang-Ju Son
Junghwa Lee
Kiwon Hong

기획
김효정

Curated by
Hyojeong Kim

진행
정선희

Managed by
Sunhee Jung

디자인
물질과 비물질

Designed by
Waterain

공간디자인
김재환

Furniture & Exhibition Designed by
Kim Jai Hwan

주최
극지연구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Organized by
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Art Council Korea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Supported b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원고지원
문학동네, 비룡소, 사계절, 슈퍼코믹스

Manuscript Supported by
SUPERCOMIX STUDIO Corp.,
Munhakdongne, Biryongso, Sakyejul

이 책에 수록된 도판 및 글의 저작권은 작가와 글쓴이에게 있으며 저작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can be reproduced in any manner without the prior writing permission from the copyright holders.

